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有限會社法施行決定

一

今三十日 朝鮮民事令을 改正하여 有限會社法을 明年一月一日부터 施行하기로 決定하엿다 有限會社法은 昨年四月五日法律第七十四號로써 公布된것으로서 內地에서도 明年初부터 實施케된것이다. 이有限會社法은 商法上會社(株式、合名、合資、株式合資)四種類外에 새로이생긴 企業組織으로서 規模가적은 合名、合資會社와 實際로 大規模인株式會社의 中間에處할 新型小會社로서 中小商工業의 企業組織으로서는 가장理想的인 簡便한 小規模의 好適한 型態라할수잇서 現下 經濟情勢에 맛는새로운 制度이오 中小商工業의 振興伸張의 必要가 一層切實한 朝鮮에 이制度가 施行케된것은 欣幸이라아니할수업다.

二

有限會社法은 十章八十九個條에 達한 큰法典으로서 商法의規定이만히 準用되는데 이제이法의骨子를들어보면 資本總額은最少限度一萬圓、出資一口金額은百圓、社員責任은 出資額限度、社員數最大限度는五十人、取締役을두되 監査役은不必要設、議決權은 出資一口一個、書面決議認定持分讓渡는 特別決議必要、有限會社와 株式會社는合倂、相互組織變更이 可能한等이다。有限會社는 社員의責任이有限인것이特徵인데 이點은株式會社와가트나 株式會社는 株主數가만코 株式讓渡가 自由이므로 株主의地位가 恒常變動되어 株主間의 連絡이 緊密치못한 缺點이잇지만 有限會社에잇서서는 最高五十人의社員이서로 信賴的으로 企業組織體로서 構成하므로 合名會社的色彩를 띄고잇다. 企業組織에잇서 無限責任은 會社業績如何로 個人이 一朝에 全財産을 喪失하는危險이잇서 有限責任이 歡迎되나 有限責任은 株式會社에서 보는例와가치 諸種弊害를 社會에주는危險도 잇스므로 有限責任이면서도 株式會社의 缺陷을 補할새로운 制度가 必要한所以로서 이點에잇서 比較的少數者로서 相互信賴下에 企業을 簡便히組織할수잇는 新型態의 會社即有限會社가 생기게됨은 그實用價値가크다할수잇다。

三

有限會社는 英國에서 發達된것으로我國에서 이번에 이것을 立法한것은 또한實際的 見地에서各國의 諸規定을 參酌하여그長點을 取해가지고 作成한것인데實質上으로는 商法의 會社와다름이업지만 法典編纂上 이것을 單行法으로한것이다。株式會社의 資本은 最少限度에對한 規定이업스나 有限會社에 이規定이잇음은 一個人이 脫法的으로 有限會社의形式을 假裝치못하도록 最小限度를 一萬圓으로하엿고 最大限度에는 얼마던지規定이업다。全額拂込이 必要하며 連帶補塡의責任을 負케하여 會社의 內容을 健全케하는同時 組織變更을 認容하여 株式會社로 改編할수도잇고 株式會社로서 有限會社로 고칠수도잇게하여 同性質의 會社를 實際境遇에 適合케 改組할수잇게하엿다。我國의企業組織이 株式會社 萬能時代를 演하여 個中에는 幽靈會社가 社會에害毒을끼치는일이 非一非再이엇슴에 鑑하여 株式會社의 缺陷을 是正하고 結合된 이有限會社란 새組織에依하여 [illegible]할수잇슬것도期

特히는一方 中小業者가만흔 朝鮮에잇서서 時代에 適合한 이 有限會社法이 實施되면 企業의 簡易組織、對世間信用向上에잇서서 이 便益이 적지안흘것을 밋어疑心업다。

阿部內閣의第一聲

獨自의立場을堅持 國防國家體制强化

東亞新秩序確立은帝國不動의國策

初閣議散會後首相談發表

【東京電話同盟】阿部新首相은 三十日初閣議散會後 午後九時五分 時局擔當의 所信에關하여 左의首相談을 發表하엿다

▲阿部首相談

今回 不肖가 優外에 大命을拜하여 實로 恐懼感激하여마지안는바이다 今後는 一意專心赤誠을다하여 輔弼의 重任을 完了할생각이다 바야흐로 世界의 時局은 極히重大하다 그리고 東亞의 新秩序의 確立은 我國不動의 國策이고 이를爲하여는 必要한 國際關係의 調節도 亦是現下의 喫緊事이다 複雜多岐를 極하고잇는 國際現狀에對하여는 帝國獨自의 立場을 堅持하고 自主的方針의 遂行에 邁進하려한다 此間 帝國의立場을 諒解하고 協力을하는 나라에對하여는 我友邦으로서 가치 世界의進運에 協力할것이고 또 그러치안흔 나라에對하여는 斷乎한 決意로써 이에對處할 覺悟이다 이와同時에 國內에 잇서서는 國內機構를 刷新하여 國防國家의 新體制를 强化하고 軍備의充實 生産의擴充 輸出의振興 經濟統制의合理的促進等을斷行하여 銃後對策의 徹底를圖하여써 時艱克服에 邁進할생각이다 現事變에對한 帝國의方針은 어데까지나 確定不動의것이므로 政府는 擧國一致 方針을 實施하여 光輝잇는 段階의實現에 邁進할생각이다 要컨대 政府는 明朗活潑한 精神으로써 百般의政務를 遂行하여 國民思想의 正導 國民能力의 高度的發揮를 期할것이다 願컨대 國民諸君도 亦是協心戮力하여써 帝國의既定國策達成에 精進하기를 切望하는바이다 (寫眞은 阿部首相)

初閣議開催

【東京電話同盟】阿部新內閣은 三十日午後 宮中에서 親任式을 無事히終了한後 午後五時三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 初閣議를開催하고 阿部首相以下全閣僚出席 席男頭 阿部首相으로부터 今回 優外에 大命을拜하여 感激하여 마지안는바이다 閣員은 서로 一層奉公의 精神으로써 難局에當하라는 旨의 人事와同時에 時局擔當의 決意를表明하고 다음에 遠藤書記官長、唐澤法制局長官의 任命을 報告하고 青木藏相으로부터 會後發表할 藏相談의內容을 報告 諒解를 求한後 正式決定하엿는데 閣議는 當分 每日午前十時부터 開催하기를協定 同七時散會 全閣僚의 記念撮影을하엿다

前閣僚辭表聽許發令

【東京電話同盟】前閣僚의 辭表는 三十日阿部新內閣의 親任式終了와 同時에 聽許發令되엇다

板垣前陸相 參謀本部附로發令

【東京電話同盟】陸軍省三十日午後四時四十分發表=前陸軍大臣板垣征四郎中將은 本日參謀本部附로 任命되엇다

政務官은追後決定

【東京電話同盟】阿部首相은 各省政務官에 對해서는 從來대로 民政、政友兩黨의 事情을考慮하여 人選方針이나 政務官의 人員은 從來대로 決定하기로되엇다

一意任務에邁進 畑新陸相記者團會見談

【東京電話同盟】畑新陸相은 三十日初閣議後 陸相官邸에서 記者團과 初會見을하고 如左히 말하엿다

時局이 未曾有하게 容易치안흔때 意外에 大命을拜하여 實로恐懼感激하는바이다 周知하는바와가치 나는全然政治에關與치안헛스므로 또軍政方面에도 關係하지안헛스므로 目下 나의心境은 全然白紙이다 다만 나의 感想으로서는 誠心誠意何等의表裏도업시 一意로任務에邁進하여 粉骨碎身報答할것을期한다 이것이나의心境이다 (寫眞은 畑陸相)

南總督 新內閣에祝電

阿部內閣親任式擧行에 際하여 南總督은 阿部新首相과 各大臣 平沼前首相에게 다음가치 電報를 發送하엿다

阿部新首相許에
內外時局重大한때 國政燮理의 大任에 就하여 慶祝에 不堪한다 興亞聖業達成을 爲하여 御健鬪를빈다

各大臣許에
御榮任에 對하여 慶祝의意를 表하는同時에 邦家를 爲하여 御健鬪를빈다

平沼前首相許에
感謝의 意를 表하는同時에 時局重大의 此際 益益御自愛를빈다

金光新拓相 朝鮮에선好感

金光庸夫氏拓相就任에 對하여 朝鮮에서는 同氏가 政黨出身關係인데 對하여 特別한 期待또는關心을 보이지안코나 同氏는 圓滿한 政友會의 逸才로 犬養內閣當時로부터 이미 頭角을나타내어 一面經濟人으로서도 實力을 가지고 잇고 東亞興業社長其他大陸諸會社에 關係를 가진 關係上 大陸에 對한 理解가갑고 따라서 我大陸政策의兵站基地로서의 躍進途上에 잇는 朝鮮에 對하여도 充分한 認識을 가지고잇스며 特히 金光新拓相이 南總督과 同鄕인 關係上 懇親한사이에 지난六月南總督이 東京에서 南北滿洲視察途中에도 朝鮮一體兵站基地로서 精神的經濟的實力의 充實에 邁進하고잇는 南總督의 統治方針에 對하여 積極的 協力을 할것으로 期待된다

總動員體制强化 資金物資의綜合的活用企圖

青木藏相談

【東京電話同盟】青木藏相은 三十日初閣議後 藏相官邸에서 今後財政經濟政策에 關하여 다음과가치 抱負를 言明하엿다

一、優外에 大藏大臣을 拜命한데 對하여는 그責任의 重大함에 鑑하여 오직恐懼하는同時에 微力이나마 힘자라는데까지 奉公할 決心이다

一、支那事變에 對處할 我國不動의 方針은 이미 確立되엇는바 그成果를 거두기爲하여는 今後에도 長期에 亘하여 擧國一致堅忍持久의 覺悟로써 臨함에 잇슴은 再言할 必要도업다

一、그리하여 輓近世界主要國間의 國際關係는 變轉하여마지안는 狀況에잇서 我財政經濟上에도 相當한 影響을 미치게되는것도 考慮하여둘 必要가잇다

一、이가튼 狀況下에 我財政經濟政策은 自然히 支那事變及國際情勢의 推移에 對處하고 我國防力經濟力의基本國力의充實涵養을 企圖하므로써 그根本方針으로 할것이라고생각한다

一、右根本方針을 實施함에는 日滿支를 通하는 生産力擴充計劃을 中心으로 資金物資의 綜合的活用에 重點하고 國家總動員計劃을 一層强化하여 確實히 그効果를 나타내어갈려고한다

一、昭和十五年度豫算編成에 對하여는 重點主義에 則하여 支那事變目的의 達成、東亞新秩序의 建設及 國際情勢에 對하여 가장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重要物資의 集中하는同時에 物動計劃의 確實에 對하여는 遺憾업기를 期하고 잇다

一、稅制의 改正에 關하여는 前內閣에서 明十五年부터 그 實現을 期하여 稅制調査會에서 審議를 거듭하고 잇슴으로 그 審議結果에 對하여 今後 充分히 檢討하고 改正案을 오는 議會에 提出하려고 생각한다

一、其他財政과 金融上 具體的方策에 對하여는 이미前大臣이 取해온바를 이어 今後事態推移에 應하여 善處하려고한다

一、더말할것도업시 財政經濟政策의 實行은 이에對한 國民全體의 充分한 理解와 協力을 어더 新任初에하여 特히國民各位의 協力을 期待하여 마지안는바이다 (寫眞은 青木藏相)

青木新藏相은 眞實한努力家

堀、山口兩氏談

阿部內閣 新藏相으로 決定된 青木一男氏는 大正五年 東大卒業으로 在京城同期生으로서는 山口、富永兩銀理事、湯村農林局長等이 上內東拓理事、堀朝銀理事 官界 財界에 錚錚한 地步를 차지한 人物인데 五年組에 第三人의 大臣으로 어름 同期生의 諸氏는 내일가치 青木新藏相의 出現을 歡迎하고잇다 以下는 堀朝銀理事와 山口殖銀理事의 談

▲朝銀堀理事談 青木君은 我等과가치 獨法科出身으로 學生時代는 非常히 熱心으로 工夫하여 너무 着實한 性格이엇다 卒業後大藏省에 들어가 外國에갓다와서 자못 社交的이되어 非常히"스마트"하게되엇다 大藏省營繕管理局長時代 來鮮한일이 잇섯다 頭腦明晳하여

▲山口殖銀理事談 青木君과는 一高부터 大學까지 가치 工夫하엿다 非常히 眞摯한 努力家로서 卒業時에는 安井英二

事變處理에圓滑期待

阿部內閣組閣의特色

【東京電話同盟】阿部新內閣은 少壯官僚의 中心的存在인 首相의 外相兼任、商工農林兼任、內相의 厚相兼任、商工農林及 遞信鐵道兩相各兼任하여 三十日 成立을 보앗는바 今回阿部內閣의 特色은 左의諸點을 指摘할수잇서 新內閣 今後의 內外施政이 注目된다

一、國際情勢急轉換에 對應할方策은 阿部首相의 外相을 中心으로 閣議中心主義下에 『새로운 構想』이 考究될것인바 從來支那事變處理方策에 依하여 事變處理方策에 活潑한展開가 期待된다

一、青木藏相의 企劃院總裁兼任은 財政經濟政策、其他財政計劃과 生産力擴充計劃、物動計劃의 一元的企畫立案의 具現을 可能케하여 從來 懸案인 內閣總務廳案이 形態를 變하여 實現한것으로 볼수잇다

一、伍堂商相의 農相兼任은 最近 農林商工行政의 一元的統合傾向을 具現한것으로 生産配給部門을 一貫하는 戰時産業政策의 迅速한 實施가 期待된다

一、內相에 司法界의 小原氏를 登用한것은 懸案의 選擧法改正問題 其他內務行政에 淸新味를 注入하고저 또內相、厚相兼任은 從來의 政黨의 政策論爭을 一掃하여 [illegible]

一、少數閣僚制의 目標로 文相의 椅子는 當然兼任이 될것으로 豫想되는데 不拘하고 河原田氏의 專任文相은 阿部首相이 國民精神作興、敎育刷新을 重要視하고 잇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海軍次官은 住山海軍中將

【東京電話同盟】山本海軍次官의 第一艦隊司令長官兼聯合艦隊司令長官 任命에 伴하여 後任次官은 如左히 決定發令되엇다

海軍中將 住山 德太郎
任海軍次官(一等)
從四位勳一等 山本 五十六
依願免本官

海軍省公表(三十日午後五時) 本日附如左히 補職發令되엇다

海軍大將 米內 光政
補軍事參議官
海軍中將 鹽澤 幸一
補軍事參議官
海軍中將 山本 五十六
補聯合艦隊司令長官兼第一艦隊司令長官
海軍中將 豐田 貞次郎
補海軍艦政本部長
海軍中將 氏家 長明
補軍令部出仕
同 住山 德太郎
補海軍省出仕
海軍少將 [illegible] 好
補海軍省軍務局長

拓務次官後任 安井誠一郎氏有力

【東京電話同盟】田中拓務次官은 小磯拓相 辭表提出과同時에 辭表를 提出하엿는데 그後任은 拓務局長 安井誠一郎氏가 有力視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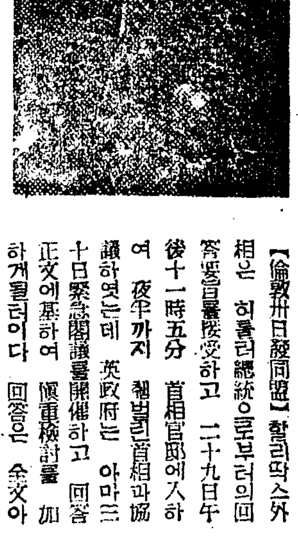
參議制는存置

【東京電話同盟】阿部首相은 內閣參議制는 從來대로存置할方針으로 町田參議以下現參議에對하여 全部留任을 求하기로決定하엿다

英緊急閣議를再開 히總統回答을檢討

交涉前途에樂觀氣分이漲溢

【倫敦卅日發同盟】할리딱스外相은 히틀러總統으로부터의回答要旨를接受하고 二十九日午後十一時五分 首相官邸에入하여 夜半까지 첨벌린首相과協議하엿는데 英政府는 아마三十日緊急閣議를開催하고 回答正文에基하여 愼重檢討를 加하게될터이다 回答은 全文이 흡성이나 된다고 傳하는데 英政府의 回答直後 二十四時間으로 和戰이 決定되리라고 보고잇섯는데 히틀러總統이 詳細回答한것을 보면 交涉前途는 依然有望하다고 볼수잇다 英獨兩國政府의 主張은 波蘭問題에關한限 正面으로 衝突되어 和協方式을取하기는 至難할지나 或은 단지히에關한 暫行協定을 締結하고 다시 波蘭問題解決에關하여 交涉을 거듭하게될지도 모른다 波蘭政府는 獨逸國內八十萬의 波蘭人과 波蘭國內約百萬의獨逸人을 一億磅前後의費用으로 交換할것을 示唆하고잇는 模樣인데 이方式에關하여는 英政府에서도 아미局面打開策의一步로서 考慮하기로되엇다고한다 二十九日下院에서의 첨벌린首相의演說에依하여 議會側에서는 樂觀氣分이 漲溢하여 勞動黨이 婦女子를 倫敦으로부터 避難시키자고 要請한데對하여 첨벌린首相은 아직이르다고 이를拒否하엿으나 獨軍이 슬로바키아國內로 進駐한事實도잇서 情勢는 若干好轉되엇스나 依然一觸即發의 危險은 繼續되고잇다 (寫眞 히總統과 할리딱스)



波、對獨强硬聲明

波政府獨領事를拘禁

【華沙二十九日發同盟】波蘭政府는 二十九日 獨波國境에서의 獨逸軍隊의 動員進捗狀態가 事態의重大化를 招來치안흘수업슬만치 强化되어잇다는 强硬聲明을 發하엿다 波蘭國軍當局도 이에呼應하여 何時든지 곳總動員令을 發할수잇도록 準備를하고 잇다 他方外務省代辯者는 波蘭은 英佛과 同樣으로 同問題의 平和的解決을 希望하고 잇스나 한번侵略的行爲가 開始되면 波蘭은 그全能力을 發揮하여 對抗할것이라고 그決意를 再確言하엿다

【와쏘二十九日發同盟】波蘭政府

丹市參議院 物資統制令布告

【단치히二十九日發同盟】단치히參議院은 二十九日物資統制令을 布告 까솔린 食料品의戰時統制를 實行하기로되엇다 右統制令內容은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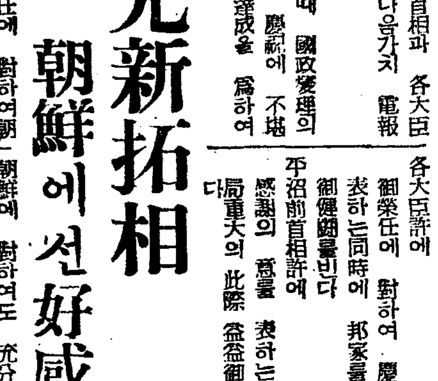
一、自家用使用의 까솔린購入에는 特히 許可를 要한다

一、參議院은 何時든지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期間에 全食料品店을 閉鎖할 權限을 附與되엇다

海軍異動

【東京電話同盟】吉田聯合艦隊司令長官兼第一艦隊司令長官의 海軍大臣親任에 伴하는異動은 如左히決定하고 三十日海軍

現地報告 (21) 本社特派員 沈貞燮



平北篇 新義州多獅島間 大工業地區設定

一〇、新興工業의勃興

從來平北의 工業은 製材業으로부터 發達을보앗다 昭和十二年度의 道內生産物 總價額二億一千萬圓中 農産物一億二千萬圓을 除하고는 木材를 主로한 工産物價六千一百餘萬圓이 다음가는것만보아도 짐작할수잇다 鴨綠江上流의 天然森林을 流筏로써 運搬하여다 製材를 始作한것이 唯一한工業이엇섯고 後에鑛山地帶를 背景으로한 鑛工業、木材를 原料로 製紙業其他 若干의家內工業의 發達은 되엇스나 近年에 이르기까지 近代的化學工業이라고는 王子製紙會社의 新義州工場以外에는 特筆할만한것이업고 모두中小工業程度에 지나지안흐든것이 過去의 工業界엿섯다 平北이 工業的으로 新興的 革命을 이르게된것은 滿洲國의 完全한發達과 朝鮮의 農業偏重政策에 農工併進政策으로 轉向된것이다 또한近因으로內地資本家의 朝鮮進出과 內地工業의 統制强化에 依하여 朝鮮에로 轉出의 理由도잇지만 첫재는 新義州附近이 工業的으로 發達될 要素를 具備하엿기때문이다 첫재는 鴨綠江水電開發로 發電地에 接近하야 豐富低廉한 動力의 供給을 것이고 둘째는 多獅島築港과 國鐵幹線의 通過地로 運輸에 便利한點과 셋째는 鴨綠江의 伏流水를 利用한 工業用水의 豐富함과 넷째로 新義州多獅島間의 廣大한 工業用 好適土地를 利用할수잇스므로 諸工業의 勃興을 보게된것이다 內地大企業家들의 進出은 이미相當한數에達하야 蘆葦를 原料로 하는鴨綠江製紙會社의『펄프』工場은 新義州府外 敷島洞서 操業을 始作하고 東拓系의 無水酒精工場도 가튼敷島洞에 設置되엇고 其他製鍊所들 爲始하여 紡績、『세멘트』、鑛業用品等의 工場이續出되고잇다。平北은 產金王國으로부터 新興工業王國으로 飛躍的發展을 보이고잇다。

一一、新義州多獅島間에 大工業地帶造成

時局은 地域的自然發達을 許치안코、『블럭』經濟를 基調로한 重要工業과 國策的 資源開發로 躍進시키고말엇다。지난七月三日에 總督府에서 開催된 朝鮮市街地計畫委員會에서 新義州多獅島間의 工場地域設定을 決定하엿다 이大市街地計畫은 現在의 新義州府로부터 多獅島를 一圓으로하는 尨大한것으로 大體로 新義州、楊市、多獅島를中心으로한것인데 各地의計畫區域의 總面積은 大千四百七十一萬坪이 나된다。이것은 住宅地增成地區와 工業用地增成地區 千十九萬坪 土地區劃整理組合施行地區三百三十二萬坪을 包含한것으로 이것을 地域的으로分別하여보면 新義州都市計畫區域은 現在의 府域外에 義州郡古津面古城面、光城面의一部로 總面積一千五百七十一萬坪이고 其中住宅地 二百八十三萬坪、工業用地二百四十八萬坪、區劃整理地八百二十萬坪이며 楊市의包含區域은 義州郡古津面一部、龍川郡楊光面楊西面、楊下面、東下面、北中面一部 合六個面總面積二千百三十萬坪으로 其中住宅地三百七十八萬坪、工業用地二百二十四萬坪 區劃整理地區一千五百二十八萬坪이고 多獅島區域은 北中面一部 龍川面、府羅面、龍岩浦의 四個面으로 總面積二千七百七十萬坪 其中住宅地四百四十八萬坪、工業用地五百四十七萬坪、區劃整理地二千七十五萬坪、以上大規模의 都市計畫區域內에는 商業地、住宅地、工場地等을 決定하고 風致、美觀、防火、風紀의 四點을 考察하여 施設에 萬全을다하기로되엇다。이와가튼計畫이 樹立되기는 廣闊히 말한바와가치 水電開發과 地理的으로

一二、誘致되는大工場繼續建設

工場地帶設定計畫을마친 平北道當局에서는 工場誘致運動을 하는一方 工業用水供給에 萬全을 다하기爲하여 昨十三年 六月에 總工費百五十萬圓으로 義州郡威化面上端洞에서 水質조흔 工業用水를 供給할 設備를하여 一日平均三萬噸을 給水케되엇는데、이것은 爲先鐘紡工場에서 約一萬八千噸 無水酒精工場에서約二千噸을 쓰고잇서 將來諸工業의 進展에 따라 漸次給水가 不足될것이므로 一日平均十萬噸給水能力잇는 設備를하고 잇다。土地廣에 對하여는 法令制定에依하여 道當局에서 買收하여 分割提供키로 되엇스므로 地理的條件은 一層有利케되어 企業家들은競爭的으로 投資를하려고 確保權에計劃을 세우고 現狀을摸索하고 잇는中이데 大體로 確定을보게된工場은 前述한鐘紡의人絹『펄프』工場、無水酒精工場 三成製鍊所外에 日曹系朝鮮化學工業會社의『알미늄』製鍊事業、日本鹽業、金屬『마그네슘』日本電氣化學及國產輕銀의『알미늄』等으로 七工場의 電力推定消費量은 合計八萬키로라는大規模의 工場들이다 其中鐘紡의『펄프』工場은 벌서 操業을始作하여 我國人絹工業界의 重要를 맛고잇고 無水酒精工場은 東拓의 五百萬圓과 獨逸의 파르벤 所有會社資本金 三百五十萬圓으로 設立된것인데 工事를 進捗中이다。느저도今年末頃에는 完成되어 操業을開始할모양인데 獨特한『쇼ㅣ라ㅣ크』法에依하여 年產二萬五千石의 無水酒精을 製造할 計劃이라는데 이計畫은 日本最初의計劃이니만치 亦是重要를맛고、三成製鍊所는產金增產計劃에依하여 現地製鍊을하려고 三成鑛業에서 龍川郡北中面에 工場을 建設中이다。其他新設工場은 아직 卓上計畫에 지나지안흐므로 알바업스나 化學工業과重工業이勃興될것이다。(續)

和平派國民黨大會

汪精衛를臨時首席으로推戴 和平建國運動에邁進

上海某處서開催

【上海三十日發同盟】汪精衛를 中心으로하는和平派에서는 前부터 蔣政權의 容共抗日政策을 排擊하고 孫文의 眞意를 體한正統派國民黨 結束工作을 하여왓는데 機運이 드디어 熟하여 去二十八日부터 三十日까지 三日間 上海某所에서 各地方에서 代表二百四十餘名의 出席을 어더 盛大히『中國國民黨 第六次全國代表大會』를 開催 汪精衛를臨時首席에 推薦하고 大會首席團選出、大會秘書의人選追任等各般의組織을 整備 다시 別項과如히 中國國民黨政綱、中國國民黨第六次全國代表大會宣言 反共을 本黨의 基本政策으로하는 件等其他各種重要決議를 하엿다 이리하여 强力한 組織力과 嶄新한 氣力과 理論으로서 一路和平實現、東亞新秩序의 再建에 向하여 邁進하기로되엇다(寫眞은汪精衛)

【上海三十日發同盟】中國國民黨은 今月二十八日上海에서 第六次全國代表大會를 開催하고 三十日에 閉會를 告하엿는바 大會秘書處長梅思平氏는 記者에게 對하여 大會開催의 經緯及 大會狀況 그決議內容等에關하여 다음과가치 重要談話를發表하엿다 汪先生이 昨年十二月二十九日通電을 發表하자 全國民衆及 各地黨部는 이에 響應하여 各地黨員海外華僑及黨部와 各地民衆團體及 特別黨部等이 支持電報를 보내는바 重慶政府及黨部當局은 이미 共産黨壓迫에依하여 自由로 그職權을行使할수업스므로 黨員一致하여 汪副總裁에對하여 第六次全國代表大會를 召集하고 國是를 協議하기를 請求하엿는바 各地黨員으로부터 推薦된 代表二百四十名의 參集을보앗스므로 八月二十八日 開會式을열고 于先汪副總裁를 臨時首席에推하고 大會首席團을 選出하여 大會秘書處의 人選을追任하고 第六次全國代表大會議事規則을 議決하엿다(中略)二十九日午後二時大會를열고 汪首席이大會의首席이되어 左記重要한 提案을附議하여 그 決議를보앗다

一、本黨政綱修正案
二、反共을 本黨基本政策으로하는案
三、中日關係를 根本的으로 修正하여 速히國交를 回復하는案
四、中央執行委員會首席에 受權하여 中央執行委員會를 指名하고 黨外人士와協同하여 中央政治委員會를 組織하는案
五、速히 國民黨大會를 實施하는案

다음에三十日午前 第三次大會를開催 中央執行委員을 選擧하고도 本期大會의宣言을 決議한後 閉會式을 擧行하엿는데 모두汪主席이 會議를 主宰하고 同四時終了 閉會를 告하엿다 今後國民黨은 그 歷史的使命에 鑑하여 更始一新 全國人民을 領導하여 和平建國의運動에 邁進하고 本大會決定의方針에 따라 着着그實現을 圖하여 써 前途의光明을 開拓하려는것이다

國民黨政綱全文

【上海三十日發同盟】中國國民黨第六次全國代表大會에서 可決된 中國國民黨政綱全文은 如左하다

甲、外交
一、國家生存及 主權獨立의 原則에基하여 睦隣의 政策을 勵行하여 써 東亞永遠의和平을 確立함
二、共産主義를 奉하지안는 諸國과 聯合協同하여 第三國際黨의 陰謀를防止함
三、各友邦의 正當한 權益을 尊重하고 益益 그關係를 調整하여 써 友誼를增進함
四、平等互惠의 原則에 基하여 各友邦과 通商條約의 修訂을 協議함
五、經濟의回復과 資源의 開發을 圖하기爲하여 友邦各國의 資本及技術과의 合作을 歡迎함
六、和平及外交方式으로써 租界를 回收하고 領事裁判權을 取消함
(政治、軍事、經濟、敎育의 各項은省略함)

人事·集會

◆文世榮氏(朝鮮語辭典刊行會)卅日午後一時半 京城府樓上町一五九番地九號 自宅에서 遭外艱
◆朴龍雲氏(本社監査役)三十日市內 東四軒町五〇의三五自宅에서 遭慘慽

市況 (三十日)

◆新甫 生糸 後引◆
當限 納會 先限 一六三〇

辭令

(八月三十日附)

(警務)總督府屬 新井 基一
任總督府道警視(七等)
補昌德宮警察署長
總督府江原道警部 深井 民次
任總督府道警視(七等)
補慶源警察署長
總督府咸鏡北道警部 正田 茂一
任總督府道警視(七等)
補羅津警察署長
(咸北警務課長)總督府道警視 鮎川 榮司
補平壤警察署長
(全北警務課長)同 加藤 和夫
命咸鏡北道在勤
(昌德宮警察署長)同 石渡信太郎
命全羅北道在勤
(羅南警察署長)總督府道警視
(平壤警察署長)總督府道警視 田中傳次郎
(釜山警察署長)同 池內勝太郎
(羅津警察署長)同 鹽谷 武夫
(淸原)總督府郡守 文 炳 瑞
(厚昌)同 金 熹 鉉
總督府道理事官 坂川 英毅
朝鮮公立中學校敎諭
依願免本官(各通)
(平南産業課長)朝鮮産業主事 光石 郡治
依願免本職
總督府事務官 加藤傳次郎
總領事兼總督府事務官
免兼官
總督府稅關鑑査官 奧田 麗恩
補平壤公立商業學校敎諭
總督府遞信事務官 小川 要次
朝鮮簡易生命保險審査會幹事被仰付
兼任朝鮮公立實業學校敎諭(七等)
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 赤木久米男
命平安南道在勤
兼任總督府道技師(七等)
總督府穀物檢査所技師 小林 東三
補羅南公立中學校敎諭
任朝鮮公立中學校敎諭(七等)
總督府師範學校敎諭 風間 勝
補咸興師範學校敎諭
任總督府師範學校敎諭(七等) 砂場 作平
總督府師範學校敎諭
命釜山稅關在勤
任總督府稅關鑑査官(七等)
總督府技手 田崎 [illegible]
命平安北道博川郡在勤
任總督府郡守(七等)
總督府平安北道屬 朱 [illegible]
補釜山警察署長 [illegible]

東海線

嶮山峻嶺타고넘으니· 驚異의工業地三陟

寶庫開發을재촉하는鐵路工事는바쁘다

本社特派員 李鴻稙 文 權泰完 寫 ②

후포(厚浦)와 죽변(竹邊)이 두어항은 울진읍을 중간에두고 남북해안선에 각각 상거해잇다 지금후포는사십이만원을 던저 방축을 완성하엿고 삼천톤급의 선백이 들어올수잇게되어 문제의일월산(日月山)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날에는 반출항으로서도 면목을 두드러지게할날이 멀지 안흘것이다.

◇……◇

동해선의자동차연락『코-쓰』중에 제일험난한 구간은 울진 삼척사이이다 울진서죽변을거처 자동차는『갈재』라는 큰고개를 넘기시작한다 이곳길이란 제대로 된것이업다 딱 아래가물길 린 태산준령을 버리고 메꾸고 비탈을까거내엇기때문에 산봉성 어의 좁혀지지면 자칫잘못 길 은 오솔길뿐 문자그대로 양장 구곡을 이루고잇다 슬긴벼랑 산모퉁이 엔진소리만 요란하게 돌적에 틀때마다 위험이 늦어진다 운전 수의 기름 죽여놋는지터 빼쓰의 속력은 대단히 느리 당 원체 이길이 험난하기로유 명한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울진서 떠난승객이 삼척여사에 서 하룻밤을 자고난 그이튿날 아침에는 아래윗니(齒)가 떡떡 마치어 밥을먹지못한다는 말이 잇다 차중에서눈아페 버러지는 수업는『스릴』!등골에 식은땀 을 흘려가면서 하루종일 꼭경 을치렷스니, 밥을못먹는것도 무 리는 아니겟지 난폭한 운전수 만만낫드라면 애가말라 죽거나 운수사 나우면『추락사고』줌은 예사이 엇슬것 이다그러나지금 은 회사당국의 철저한감독 으 로 운전수의『질』이 향상된터 택에 예전과가치 죽을뻔 은 치른지안코 약간 불안은느끼 면서도 이『난코-스』를 통과 할수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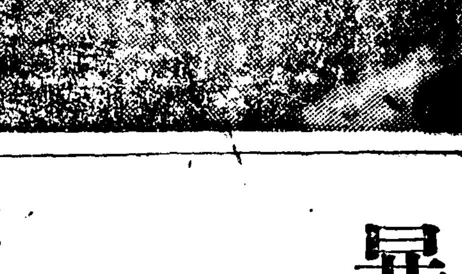
◇……◇

갈재꼭대기에 올르면 서북터 제이의 험준인『소동재』산록에 차가 미끄러저 내려가는동안 산 등성이우에서 동해바다를 내다 보는 맛이란 선경에올른듯하다 청송백사(靑松白沙)가 까마득 히 연하해변에 정점이보이는어 민들의 두옥(斗屋)!날이조흐다 나쁘나 아침저녁으로 바다와말 하는 그들의 지혜는 어느누구의 가르킴이업고 동경이엇고 충동이 엿건만 바다와친우고 바다와다 협하는 그들의생활이란 천년만 년 못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전해준총명이 라할까 소동재를 넘 기도 무척 애가씨운다 여기서 도 차는 천신만고 가지못경을 치러가며 고개마 루턱을 올라 가기에 정신을다한다 가다 가는멈추고 멈추다가는가고 마 냥 뭉기고나서 이러케하기를한 식경이나 지난뒤 차안의손님이 『후우』하고 긴한숨을 내뿜을

때에야 삼척령에서 자는 씨는 벌떡거리면서 삼척읍내를 향하 고내닷는다.

◇……◇

울제가실시된 오늘의삼척은가 본는사람마다 누구나 놀랄것이 다 삼척우성의 한복판을 흘르 고잇는오십천(五十川)이 연천에 지금도 머리를 쩔레쩔레 흔들 시를 회상하는 이곳 주민들은 풍수해로 말성을 흔들하보려 당



…가지않은 없지않어 철도 공사에 있어서도 이미 이 삼척군내에서는 …… 밑줄도 없고 굿하는 산들으로 목재도 다 잇다 …… (계속)

後援會費轉用扶助 長期缺席을默認方針

旱災地小學校兒童授業料減免에압서

京畿道學務課의三大對策

한재지농가 아동들의 중도퇴학을 방지코저 그동안 학무당국에서는 학용품절약을 통첩하는한편 수업료감면(減免)의 방도도생각하여 각도당국에대하여 구제를해야할 아동수의 지급조사를 명하는등 섬의껏 선후책을고잇기는하나 수업료면제라는 우리들받더래도 자제를계속학교에 보낼수업는궁한 처지에잇는 가정이 적지안흔모양이다 뿐만아니라 수업료보조란 원래 관(官)의일이라 수요를헤아리고 가정형편을조사하고 상사에보고하고 예산회의를통과하고 하노라면 실지로혜택을 입기까지에는 아직도당상이 시일이걸릴터이다 이점을적정한 경기도학무당국에서는 수업료면제도 조흔일이기는하나 이것만을바라고 안잇슬것이 아니라고 소고(小高)학무과장을중심으로 열심연구한결과 다음과가튼 흥미잇는 삼대요강을 결정하엿다 즉

一、자제의 퇴학과 부형들의이향(離鄕)은 밀접한인과 관계가잇는것이니 퇴학신청을 드리더래도 학교 당국은 원측적으로 이것을 수리 하지말것

一、종래로 운동회 전람회 기타건축 기금으로 적립되어잇는 후원회 적립금을 개방하여빈한한 아동들의 학용품 비용에충당할것

一、장기결석(長期缺席)을 묵인하여 한달 두달내지 석달이 되도 조흐니 집사정이 곤난해서 학교도 못오게되는아이들이 잇더래도 꾸짓지말고정경을 살펴서 아이들로 하여금학업도 도아주고 형편에따라서는 부형네와 함께구제토목공사 기타에 참가하여한푼이래도벌어서 살림에 보탤수잇도록길을 열어줄것

이상 세조목이 이것인데 후원회기금의 전용(轉用)이라든지장기결석의 묵인과가튼것은 한재현지의 정황을 십이분으로고려한 슬기잇는 착안으로 이번경기도당국의 시험결과는 크게기대된다

十日 元山 十一日 春川 十五日 京城 十六日 仁川 十八日 清州 十九日 大田 二十日 金州 二十一日 光州 二十三日 木浦 二十五日 大邱 二十六日 釜山

干先은退學防止

小高 京畿道學務課長 談

재지아동의 취학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돌아온 소고(小高)경기도 학무과장은『이향(離鄕)과 중도퇴학은 밀접한관계가잇습니다』하면서 다음과가치말하엿다

이번에 실지로다녀보고 어떠케해서라도 농촌자제들의 중도퇴학만은 방지하여야하겟다는것을 새삼스러히 느꼇습니다 학교다니던 아이가학교를 고만두면 위선부형네의기운이 풀리기쉽고 또그러케되면 집안이 수산하고 떠나지안코서도 견딜수잇슬경우에도 고향을떠나게되는일이 만습니다 그래서 이번시찰때에도가는곳마다 소학교교장을 보고 신신부탁해두엇지만 학용품중에 필요한것은 물론이지마는 후원회기금을 끌어내어 아이들을 도아주는한편 장기결석이 되어도 무방하니 숨이롤때까지 부형네를노아서 집일을보다가 다시돌아오면 바더주도록해서래도 학업계속의기회와 길을 막어버리지안토록 할결심입니다

電車에轢傷

삼십일 오전아홉시쯤 부내남대문(南大門)전차정류장 아페서—

愛婦巡廻講演

애국부인회 조선본부에서는 전국 고등녀학교장협회 이사장동우학원장(東友學院長)시천원삼(市川源三)씨를초빙하여 전조선 열두군데에서 다음의날짜에 총후가정강화 대강연회와 명원간담회등을 열기로되엇다

十一日海州 十二日平壤 十三日新義州 十四日 清津 十八日羅南 十九日咸興

京城四大私立專門 今秋부터軍事敎練

佛專生도袈裟벗고"武裝"!

총독부 학무국의 지시에따라 오는 새학기부터는『세브란스』의전 연희(延禧)전문학교 보성(普成)전문학교 중앙불교전문학교등 네사립전문학교에서 군사교련을 일제히 실시하기로 되엇스며 교련선생도 거의작정되고 모든준비를 착착진행하고잇다 교련선생은 연희전문학교에서는 기병중위(騎兵中尉) 박창하(朴昌夏)씨로 보성전문학교에서는 보병소위(步兵少尉) 조철호(趙喆鎬)씨로 정하엿고 불교전문학교에서는 보성중학교교련교유로잇는 상택중위(相澤中尉)를 한동안 촉탁으로하여 교련을 밧기로 되엇스며『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도 일간에 확정하게될터이다

그리하여 각기맹렬한 교련을 실시하여서 오는시월중순에 거행할 학생연합연습에 처음으로 참가하게되는동시에 낙오(落伍)되지안토록 힘쓰기로 되엇다

더욱이 불교전문학교 생도는 그대부분이 중들인데 전시의중조에따라 가사(袈裟)와 목탁을 던지고서 총칼을메고 거리에 나오게될터이어서 이것도 또한 전시풍경의 하나라 하겟다

有望視되는百餘鑛山 斷乎·增產命令發動

物資配給、資金融通은當局에서斡旋하고

이래도不服이면强制移轉

총독부광산과에서는 산금국책을촉진하기위하여 방금여러가지 방도를 강구중에잇는바 이미 광업권을 가지고잇으면서도 산금증산의 미온적 태도를 가지고는 도저히국책에 상부할수없다는 보조(步調)를 기대하기어려운바잇스므로 광산과에서는 사금(砂金)석금(石金)을통틀어 약일백광구를 조사하여 구월중에 증산을 명령하기로 결정한후 방금제반준비에 분망중이다

이들조사한 일백광구중에는 현재작업을하고잇는것도 잇고 아직 작업을하지안코잇는것도 잇는데 이것은 흡수증산이가능하다고보는 광구로서 만일 이것을 증산명령을 발동하는경우에는 총독부는 소위 수면광산도 도합하여 물자배급 자금융통 등을 조사선정한결과로서 총독부에서 알선할것이며 만일 증산명령에 복종하지안커나 또는 증산명령에복종하지안는 경우에는 총독부에서는 광산과당국의지휘감독대로 강제이전명령을 발하리라는데 이런경우에는 조선산금진흥회사 또는 산금개발회사 가 생기기전에는 제삼자의 광업자에게 조선총독이 강제이전명령하엿스나 지금은 국책산금회사인 전기두기관이 잇스므로 이번에강제이전 명령을 하게되면 당연히 산금개발회사에이전할것은 물론이다

산금증산령이 발포실시되는때 수면광산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불철저 불확실한 광산이 매우 도마우에 올라서문제를 거듭하여오더니 밀경성후의 단안을 내리게되는 모양이다 하여간 증대국책선상에서 움직이고잇는 이문제의추이는 자못주목할거리되는것이다

牛結核豫防令

十月一日부터實施

정작은 소의결핵(結核)예방을 목적으로 지난칠월이십칠일발표된조선우 결핵병예방령(朝鮮牛結核病豫防令)은 오는 시월일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엿다 그리고 동령시행규칙은 삼십일부로써 발표하여 본령과 함께 시월일일부터시행한다

京城觀光協會

昨日定期總會

경성관광협회(觀光協會)에서는 삼십일오후두시부터 부민관식당에서 정기총회를열고 십사년도 예산(豫算)결정을하엿는데 예산총액은 일만사천오백구십오원으로 전년도보다 이백육십원이 오히려 줄엇다 이것은 조그만 금액이나 그 이면에는 도시로서의발전을 축진하는선전적 의미를 가지게되는데 경성의 관광예산이 주려드는것은 '관광경성'의 뒷거름치는것으로 유감되는일이다 대륙의전진기지로서의 조선의수도인경성은 내왕하는손님이 날로 늘어가는때 경성부를비롯하여 관광관계자는 일층분발하여 내지와대도시에는비할수업서도 유지할 관광시설확충경비에 매진하여 국제도시로서의 면목을유지할 필요가잇다는소리가 각방면에서 날로도 피가고잇다

華山小學校基地

朝鮮實業會社에서寄附

부내 현저정(峴底町)에 잇는 사립 화산소학교(華山小學校)에서는 삼십일오후 죽첨정(竹添町)이정목에잇는 조선실업주식회사(朝鮮實業)로부터 돌연 현재그학교가 서잇는 학교기지의기부를밧고 교장이하 교직원 아동이 곳이사실을 교주 정봉현(鄭鳳鉉)씨에게 알리는동시에 동교아동들에게도 전하여 부형들 미 기쁨을 가치 나누기로하엿다 조선실업계에서 이번갑자기 화산학교에 기지를 기부하게된 경위를 들으면 다음과갓다 즉 조선실업에서는 소화십삼년부터 영천일대에잇는 가옥기지를 주민들에게 팔고잇섯는데 이달상순에 전부이전부 팟섯스므로 이에대 남오후 중역회의를열고 이에대한 결산보고와 새사업에관한토의를 하던중 단하나 최후까지 팔지안코 남겨두엇던 화산학교의 기지만은 전부 문명으로 동교에 양여하기로 결정한것이다 시 화산학교기지는 천여평으로 시가로 …… 가지 못한것이 유감이더니 이로서 우리학교는 참말로반석우에 서게되엇습니다

또한 조선실업전무 박덕영(朴德榮)씨는 다음과가치말한다

화산학교기지만은 동교가 교육기관이니만치 팔지안코 남겨두엇섯는데 이번 영천일대의 토지가 전부처분이되엇스므로 그것은 그냥 기부하고 말앗습니다 우리회사의 적은 뜻이 동교에대하여 다소나마 도움이된다면 우리로서는 만족하게생각하겟습니다

暴風雨실은颱風 今朝中部地方橫斷?

朝鮮海峽과西海岸一帶에暴風雨가襲來

內陸地方도格別警戒

이십팔일부터 상해(上海)부근해상에나타낫든 태풍(颱風)의여파로 이십구일 조선각지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소나비가내려 해갈하게된것은 반가운일이나 그후 태풍이 만일 조선내륙을 방문하는날에는 상당한피해가 예상되므로 그동향은 극히 주목되던바 인천기상대를 비롯하여 조선 각지측후소에서는 삼십일밤을새워가며 그동향을 감시중에잇섯는데 이날밤 아홉시현재로 인천기상대에들어온 태풍정보를 종합하면 다음과갓다

태풍은 천천이 북극으로방향하여 올라오고잇서 삼십일밤 아홉시현재에는 목포(木浦)서남서쪽 삼백오십키로되는 동경(東經)일백이십삼도 북위삼십사도부근해에잇서 한시간에십키로쯤되는 느린속력으로 북진하고잇다 바람구역은 태풍중심으로부터 반경 오백키로 (多島海)방면이 매초이십오메-타 내지이십메-타 속력으로써 찬비람이 불고잇스며 조선해협과 황해도연안에서도 십오메-타가량의 바람이불고잇다 태풍은 계속하여 황해를 북쪽으로 올라가나 어쩌면 북북동쪽으로 방향을변하여 삼십일일아침에는 북부와중부조선을 지날는지모른다 지나는곳은 폭풍우가 내리게될터이므로 바다에서는 물론 내륙에서도 특히 조심할 필요가잇다

(…前續)

가튼 『삼척거군』가 삼척읍내의 고이지안 최근 엇지하기 기세는 …… 여기서 산제 동해선 …… (계속)

新國策型燃料로된

아세치린自動車

試驗成績은大體良好

『까솔린』을 졸처럼 사드릴수 업서서 자동차영업자는 쩔쩔매고잇고 따라서자동차이용자도 자동차를 구하여 타기어려울 형편인데 요즘에『아세치린』까스로 자동차를 움직일수잇는 새발명이 성공되어서 비상시 교통에 한줄기광명이 잇게되엇다 이『아세치린』자동차는 국산(國産)자동차 회사에서 만든것으로 경성전기회사에서는『빠스』두대를 벌써사드렷는데 이십구일오후에 경기도국 철도국 사령부 기타각교통사업관계자가 타고서시험해본결과 그성적이상당히조하서 비록『까솔린』이업더라도자동차를 운전할수잇는확신을 엇게되엇다 이것은『카바이트』로써 연료(燃料)를 삼는것이므로 목탄(木炭)자동차보다는 훨씬 간편하고겨울에도 아무지장업시 사용할수잇는것이라 하며 아프로는차차보급될모양이다

京畿道水產會總代會

경기도수산회(水產會)에서는삼십일오후세시부터도청제일회의실에서 의원총대일동이 모여서총대회의를 열고 십사년도 회계검사와신년도예산에 대하여 토의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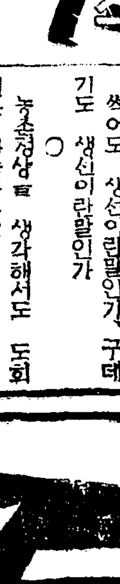
新設될神學校

昨日設立認可願을提出

김대현(金大鉉)씨로부터 거액의기부를어든 조선신학교 설립기성회에서는 그동안 경성근교의 은평면 수색(水色)역부근에 사만오천여평의 기지매수도 대략 끝낫스므로 삼십일 기성회간사 송창근(宋昌根)씨의손을거처 일대로 서류를 가추어서 경기도당국에 정식인가원을 제출하엿다 개교는 오는 시월일일 예정이며 교사가 준공될때까지는 임시로 경성시내 승동(勝洞)예배당을 빌려 쓸터이라고한다 교사는 공비십만원으로 계획허가가나오는 대로 공사에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甲子園의人氣림

聖峰中學은全軍이朝鮮出身



【大阪支社電話】大每主催의 第二十五回 全日本中等學校野球選手權大會는 지난二十四日부터 甲子園運動場에서 開催되엇는데 朝鮮代表인 聖峰中學의 不出場者가 多少驚異의 적이 어지 아니하엿스나 初出場의 京城鐵中主軍選手는 全部가 半島出身選手만으로서 近畿代表로 出場하엿는바 同大會에서 三對一로 敗北하고 어서 …… 三對 二의 同點이 되엇스나 …… 로 …… 하엿스며 …… 되엿다

▲聖峰中學團長=桑原覺平 ▲코-취=八代賢夫 竹內大助 ▲選手=李宗春 李尙根 金澈熙 金得秀 李甘浚 李石鎬 金孟源 李鎬燮 朴善學 張翰淑 金顯坤 ▲候補=金都耀 竹內文助 (寫眞은 聖峰中學軍)

釜山對京城軟式野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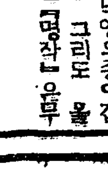
二對二로無勝負

朝鮮軟式野球聯盟主催의 第四回全朝鮮都市對抗軟式野球大會決勝…釜山(慶南代表)對京城(京城代表)戰은 三十日 午後五時五分부터 京城球場에서 大平(球)上村、署野、川人(壘)四氏審判下에 京城先攻으로 開始된바 兩軍은 九回까지 一對一同點되어 補回戰에 들어갓스나 亦是勝敗를決치못하고 日沒로中止되어 今三十一日 午後五時부터 再試合을 擧行하기로되엇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釜山	0	1	0	0	1	0	0	0	0	0	2
京城	1	0	0	0	0	1	0	0	0	0	2

▲軟式野球=第四回全朝鮮都市對抗軟式野球大會決勝…京城對釜山 午後五時 京城球場(觀覽無料)

▲八月三十一日(木曜)陰七月十七日 ▲干支庚子 ▲日出午前六時二分 ▲日南中午後零時三十四分 ▲日入午後七時六分 ▲晝間十三時四分 ▲月出午後七時三十一分 ▲滿潮(仁)午前六時十分 午後六時二十分



딱총

종이갑시 사오할이나 폴등 ○ 낙양의종이갑 을 그리도 올린『명작』유무엇이엇던가? ○ 구데기끌른 생선(?)내노코도 돈만 내라고. ○ 썩어도 생선이란말인가, 구데기도 생선이란말인가 ○ 농촌청년을 생각해서도 도회인은 자숙하라고 그럴줄 알기만하면, 철둑이들렷만.

今日天氣 曇一時雨

廣告

國策資源 金銀鑛脈發見法全

長期戰下에 產金の重要性は…… 金鑛脈の發見法……

◎모든家庭工業 製造化學通信學校

東京市牛込區…… 唯一本邦

パラミード(金剛)
元賣 金剛製藥所

KONG-GO

淋疾絶滅爆擊部隊出現
各地有名藥房販賣

桃花劇場 電話龍一三三三

八月廿八日—卅日 每日晝夜二回 晝上廿一錢 夜下十錢
大每、大毎パテーニュース
金剛キネマ社作 魔像百萬兩 後篇
監督 牧丸浩 主演 天津龍太郎 宮川敏子
コロムビア社超特作 全發聲日本版
醉ごれリズム
主演 ハミルトンマクファーデン ラルフベラミ ペティファネズ
松竹大船作品 花ある氷河(或ル淑女ノ告白)
監督 原研吉 主演 三宅邦子 上原謙 坂本武 飯田蝶子
次週=武器密輸船 近日封切
豫告=ブルウ 人の妻(知らないで) 敗戰の審判

松竹映畵
二十八日より當分間
臨時休館
館を改裝の爲め暫らく御辛抱を願上ます
平壤 キネマ

元山 元山館에서
相對役 金順德 孃
金吉子孃 熱演
東洋의쌀리-템플 當年六歲少女歌姬
YMHス워그·아돌쌀
期待! 性格舍은 演技를 乞

納涼 北鮮巡回興行
八月二十八日부터
演劇號
新作劇本發表週間! 多恨 朴順女 女史의

◇三十日より特別封切
◇東寶特作 中川信夫演出 エノケンの森の石松
見逃がせない天下無敵の豪華版
◇ユナイテット社大作 マルコポーロの冒險
ゲーリークーパー主演 シグリッド・ギュリー ペシル・ラスボーン ウエルネスト・トル エクス
出演人員五千有餘人 出場馬匹數千頭製作 日數三ケ年餘
◇各社ニュース
大劇

八月二十八日—三十日 每日晝夜二回 晝午七時半 大衆料金 階上二十錢階下十錢
◇大每ニュース◇
◇東寶映畵社超特作
總の教科書 監督 渡邊邦男 主演 佐伯秀男 大川平八郎 霧立のぼる 英百合子
R、K、O社超特作 本版
武器密輸船 監督 エヴィングスコット氏 主演 ジョーンオブライエン氏
新興キネマ社特作東京撮影所作 怪談驚鴦帖 監督 木藤茂氏 主演 尾上榮五郎 鈴木澄子
次週=ブルウ=人の妻=知らないで=敗戰の審判=續影篇
新富座 電本五六七七

中部版

江華面葬으로 許赫通譯葬儀

【江華】소화십사년 일월십일 ○○부대에 전속통역으로 산서전선에 나아가 활약하던 강화출신의 허혁(許赫)통역은 뜻하지 아니한 병마에 걸니여 제일선으로부터 후퇴하여 원에 입원하엿든바 그경과가 불량하여 지난○일 별세하엿다 ○○부대의 원대에서 지난이십구일에 유골을 거행코 그 유골을 지난이십구일에 마저 삼십일 오후한시에 강화경찰서 연무장에서 강화면민주최와 군사후원연맹 강화소방조 후원으로 장의를 성대히 거행하엿다

信憑못할"가마니"쌀 斤量으로販賣實施

開城穀物協會에서卅日부터斷行을通達

消費大衆의利益爲하여蹶起

【開城】개성에도 백미협정가격이 통제된후 정미업자로부터 가마니쌀을 사다파는 부내백여명 곡물소매상들은 손해를 입게되여 요지음영업을 중지하는자가 속출하게되엿다한다 그자세한내용을 듯건대 정미(正味)십되(十升)라는 가마니쌀을 십팔원에 사다가 한되에 삼십칠전의 공정가격을 밧고팔면 수짜적으로는 오십전의이익이 잇스나 전기가마니는 실상두되나 부족한 사십량등에 불과해서 결국손해를 당하게된다는 것이다 죽 이가치 신빙키어려운 가마니쌀의용량제도를 폐지하고 양형제(量衡制)를 실시해서 공정을기하기 위하여 개성곡물협회(開城穀物協會)급 동소매상 조합에서는 지난이십팔일 오후네시 개성서 휴시실을 빌어연합회를 개최하고 장시간 협의한결과 삼십일부터 다음과가티 중량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일반소매상에게 이통을 통첩하기로 되엿다

一、韓白米 都賣價格은 正味百四十三斤에 三十萬圓 同小賣價格은 三十七圓

(但 此價格中叭代는 包含치아니하고 配達은從前과가치實行함)

二、衡器設備가 有한時는 重量販賣를原則으로함(但一升(十升未滿)은 容量販賣도無妨함

三、衡器設備가 無한時는容量販賣도無妨하되 七十一키로 五百구람以上은此限에 不在함

四、正升販賣人은 地方公正價格以內로 他地方에서 販入함도無妨함

협정가격은 협정사황중 전기정미일백사십삼키로에 삼십칠원이라함은 재래한섬에 해당한 용량으로 소매상은소비자로부터 오십전 섬에일원 한가마니에는 오십전의이득을 보게되엿다 그러나이것을 되(升)푸리로해서판다면 전기와가치 손해를입게될것이므로 자연중량제도는 업서질것으로이판조된다 그런데한되에해당한 중량은일"키로"사백사십삼"구람"이라한다

金谷에도喜雨

【金谷】계속되는한재는 전국지방에도심하여 간신히심어노흔농작물은 발육할사이도업시 태반이나고사되엿스므로 희망업는피해지에는 다시갈어업고 군당국의한해극복대책에의하여 달은작물로 대작까지하엿스나 이도또한계속되는가뭄에는 견디지못하고 파종한종자들이 모두말라러 다시괴되엿스므로 일반농가에서는 극도로초조하여 당해노혼웅변이나 우려함을마지안는이때에 이십팔일오후네시반부터 비가내리기시작하여 밤새도록오기는봐 수나 원체심하엿던가뭄이라 채전(菜田)과대작(代作)에만 천금우가될뿐이요 다른작물에는 아직도부족하여 일반농가에서는비가내리는 더와주기를갈망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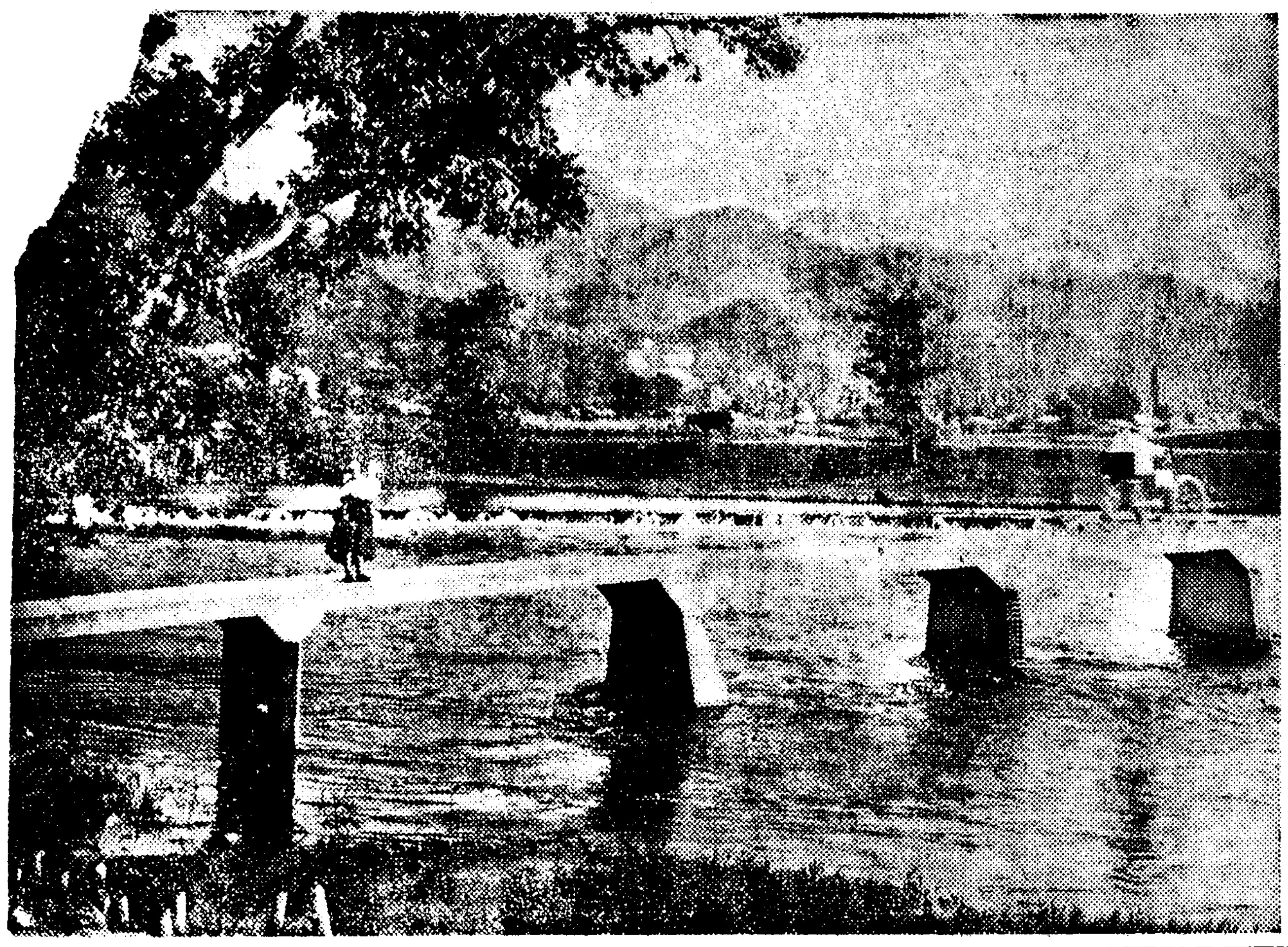
官公吏勤勞報國團 開豊郡北面의垂範

【開城】개풍군북면(開豊郡北面)에서는 면직원학교직원 주재소원등 관공리이십일명으로 근로보국대를조직하여 지난십일일부터 ...

雨後의仁川에서 暴落하는菜蔬價

한풀꺽긴푸성귀時勢

【仁川】오래동안 비구경을 못하다가 지난이십팔일부터 저기 대망의 일전의 희우가 나리기 시작하여 식수가 업서 남조선지방에 상류하게되어 헤매던 각공기에서도 이번비에 목을 추기게되엿다 이에 부천군농회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벼는 이미 시기가늣져서 수확의가망이 업스나 김장배추무에는 큰도움이 되리라고한다 그리고 인천청물시장의 지난삼일현재의 채소시세를 살펴보면 모르고 모르기만하는 배추무도 삼사일전의 시세와 비교하면 배추백『몸메』에 육전이나 떠러저 삼십칠전씩에 도매로넘기고 잇스며 무도 백『몸메』에 오전이나 떠러져서 이십오전에 도매로 넘기고잇다 고초까지도 이삼전씩은 저락되어 오래동안 수방경제에 일대위협을주던 채소가격도 점차하세를 보이어 각기정과 음식점에서는 희색이만면하다



新京入江邊

畜産共進會

江原道南部五郡聯合 今秋原州에서開催

【原州】가축(家畜)과 축산물(畜産物)의 심사와 개량증식을 도모할 목적으로 남부강원도오개군 이원주(原州)횡성(橫城)영월(寧越)평창(平昌)정선(旌善)연합축산공진회를 오는시월 이십구일부터 삼일간까지 원주읍에서 개최한다는데 행사예정은 다음과갓다고한다

◇會場

第一陳列場 牛市場

第二陳列場 原州小校

展覽會 右同

映畵會 公會堂

◇行事

一、家畜及畜産物의品評會

二、畜産功勞者의表彰

三、畜産物消費利用의獎勵

四、映畵와展覽會開催

故李仁錫君에 弔慰金을贈呈

【富川】부천군소사면(富川郡素砂面) 보라연맹에서는 연내각연맹서급 각인석(李仁錫)군에게 지원병사상병교리 조위금으로 삼십원을 보내엇다

九月一日은 술안먹는날

【仁川】오는구월일일은 제신설 ...

上司의命令以外는 新規事業不認定

京城府豫算積極緊縮

명년도예산편성기를 당하여 경성부에서는 다음과가튼 방침을 결정하고 이것을 각부과장에게 이첩하엿다

一、시국대책상긴급필요한것이외 의 명령에의한사항외에는일체 신규사업은 인정치안코 신규 사업은 구월말까지 내부과장 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지안흐 면 뒤에는인정치안는다

二、계속사업에잇서서도 국력신장에 예산을계상할것

神社造營費로 三千圓을寄附

金鍾顯氏特志

【富川】현하시국 장구화에따러서 내선일체 국체명징 경신숭조의 ... 회관(會館)건설 ... 부천 여금 일흥사게자손을하여 숭조의 ... 는날로 정하기로되엇다

振興會員獻金

【富川】부천군소사면 (富川郡素砂面上里) 진흥회원 일동은 ... 것을 ... 헌납하엿다

本社水原支局後援

運動各行事決定

水原運動俱樂部에서

【水原】수원체육계의 지도단체인 수원운동구락부(水原運動俱樂部)에서는 년중행사의 각사업을 개최하기로 결정발표하엿고 각대회준비에 분망중이다 다음의개최할각종대회는 본사수원지국의 후원하에 개최키로하고 금후 수원운동계의 호화지를 보게되엿다

九月十日(第二日曜)

第六回京畿庭球大會(東川球場)

第一回中朝鮮少年蹴球大會

以上은水原共設運動場에서

九月十七日(第三日曜)

第八回中朝鮮少年軟式野球大會

九月二十三日 二十四日

第十回中朝鮮軟式野球大會

白米出廻가不良

【新昌】기보=신창시장에 미까 ...

西島와三山島에서 限地公醫를配置

年來의島民熱望遂解決

【江華】강화본도에서도 떠러저 잇는 서도(西島)와 삼산도(三山島)는 전혀 문명의혜택을 입지못하는곳인데 더구나 겨울에는 유빙(流氷)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전혀도민의 생명문제까지 일으키고 잇는 이땅에 일시는 아편(阿片)으로 신약을 삼아 전도민이 모루 모르히네중독자가되어 아차도 ...

傳染病防疫에萬全

井戶를一齊消毒

咸興署에서徹底實施

【咸興支社發】함흥서무생계에서는 단처오는 전염병을막기위하야 고서 그방면에 반전을기하고잇는데 이번에는제일중요한 음료수(飮料水)의제소독을 행하기로되엇다 ... 소독은 이십구, 삼십양일간으로 부내의 각정마다우물을『크로『칼크』로서 완전소독을 하기로되엇다

豐山市民勞働奉仕

【豐山】풍산시민은 노동봉사로 풍산운동장공사에 노동하는데모두가 비내리는 가운데 ...

春川에細雨

【春川】만인이고대하는비는 지난이십팔일오후 ...

勞働者氾濫을逆用

賃金減下의惡傾向

三千餘名旱害民을斡旋就業시킨仁川府

各工場主에特別考慮를要望

【仁川】오래동안 한해로 말미암아 각지의 이재민이 인천항을 중심으로 모여드는가 인천부사회과 조사에의하면 삼천오백여명에 달하고잇다 이에그들이 생활주제방침으로 인천부에서는 부내 각공장에 취업토록 알선시켜서 그들생활에 큰영향을밧지안토록 각공장에 교섭하여자꾸 일꺼리를 맛기는중인데 어로서 노동자사태시대를 연출하엿다고 착전을 나추어 주는곳이 수천이나 잇스므로 인천부에서는 착전을나추어서 노동자들에게 불안을주면 현재의 취업한 이재민중에 각공장생산능률이 느러감에도 불구하고 착전을 적게주는것은 각공장에 취업한노동자의 이동이 심해질염려가만타고 그이동을 방지키위하여서라도 수입는대로는착전을나추지안토록하라고 각공장주와 사용자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엿다 그리하여 이재민의 구제의 견지로 착전을 못나리게하고잇다

충동을 주고잇는데 음식점의작부메지는 소수자의 영업자와방향자들은 불만을 느낄것이나 다수의 여론으로보아 하루바삐 당국의 영단적실현이 잇기를일반은 바란다고한다

江原出身志願兵 ○○部隊에入隊

【春川】강원도 출신지 원병은 ○○부대에 입대하기로되어 삼십일 춘천에서 성대한 기원제를지내고 환송리에 출발하엿다

來九月五日에 青年團大會

【原州】남부강원 사개군인 원일 ...

少婦가投江自殺

原因은家庭不和

【襄陽】양양군서면내현리(襄陽郡西面內峴里)김종우(金鍾佑)의처 손성녀(孫姓女)(一)는 지난이십오일에 꽃따오겟다고 집을 나간후 ... 려운 살림살이하기에 만흔고생을하던중 지난이십오일에는 본 ...

遺棄品을端緒로 犯人을嚴重搜査

【春川】기보=이십구일 아침에 선시방경에 발견한 춘천읍내경춘자동차부 변소속에서 갓난어린아이를 내버린사실은 기보한바이데 시체는 좌등(佐藤)박사의 손으로 어실구일 해부에부처서 그결과를 기다리거니와 시체에는 태반이그대로 붙은아조밝은 이 조혼사나이던 경찰당국에서는범인수사에 활동을하는중이다 단한가지 단서는 버리고간 물품중에여덟자나 되는 내지천의 허리띠가잇서 범인은 다른지방에서 왓던내지인이아닌가 추측하고잇는데 체포는시간문제일것갓다고한다

泥醉後言爭타 船夫一名溺死

【保寧】보령군웅천면관당리(保寧郡熊川面冠堂里)압해상에서는 선부들이 술이취하여 말다툼끗테 너죽고 나죽자고하며 배위에서 상대방을 이끌고 바다물로 뛰여든것이 필경은 끌어내린사람만죽어버린사건이 발생하엿다한다 ... 난이십삼일 오후열시경 편당리에거수하며 선부생활을하는 남상용(南相龍)(二一) 김정국(金正國)(二〇)외 다시명은 무창포(武昌浦)에서 소주를 만히마시고 배에올다서 고기잡이를 나가다가 말다툼이되어 어쩌다가 김정국 두사람이 가 남상용과 김정국이 서로 ... 다가치 ...

校外指導機關으로 保導聯盟을結成

卅一日仁川中學校에서

【仁川】인천교육회에서는 생도아동의 학교외의 보도선도를하기위하여 인천보도련맹을삼십일일 오후세시부터 인천중학교에서 조직하기로되엇다 그런데 련맹의 조직체로는 인천부내의 중학교 소학교각학원등의 교직원으로써 조직한후 그사업으로서는각가맹단체에서 교외의감독기관을정비하고 도서관등에서생도들의행동과상영하는강연회 기타회합때의생도들의 상황급언어행동 활동사진관다방(茶房)음식점등에 출입하는 생도들의 감시와 신사경내공원운동장 유원지 상점가정거장등시에서 그행동을 감시한후이에따르는 기본조사에 따라서그대책의 연구와 교육기관의정비를비롯하여 부내각관공서와재반단체와도 연락을취한후 불량학생의방지에 지력하기로되엿다

原料大豆의暴騰으로 醬油業者들은悲鳴

大豆公定價制定要望

【咸南支社發】원료인 대두(大豆)소맥등의가격 폭등하여 장유(醬油)의 정작(釐審)가격으로는 도저히 수지를마출수업다고 양조업자들은 속히 공정가격을제정하여달라고 하고잇다 업자들의말을드르면 그원료인 소맥은 금년도에들어서 소맥은 이십원으로 폭등하엿슴며 대두도 석이십구원으로 근오할의 폭등을 보이고잇스므로 도저히 정확가격인

小樽四貫五百匁　三八〇錢

大樽(二〇貫入)一四、〇〇圓

小賣一〇〇匁　八錢

으로는도저히 수지를마출수업다고하며 최근에는 거이각집마다 제조를중지하고 외지와 장유소매업자들이라고하는데 장유의배급도에서 발표한바에 의하면추히 축항의 필요는잇스나 비용과시국관계로 아직묘연하다고 말하여현소문에 군민은 몰또지말라고한다

安木港築港은 時局關係로아직杳然

【春川】강릉군(江陵郡)의 항구로 어잇는 안목항(安木港)은수심만된 아득한 이를 긴급하여 대체계획이 서내려오는중 공사비는 총배사십만원이드는데 그간착공에까지 이르렀스나 사변관계로 좌절되어 잇슬것은 요즘 봉물장고 하게되리라는데 향간(巷間)에전 하는혜소문으로 군민의 요망은 다시치열하여지고 잇는데 강원

女工六十名募集

"京紡"工場에斡旋

【全北支社發】전주부사회계에서는 저번경성방직회사 영등포공장으로부터 여공모집을 의뢰맛고 이를방고하엿던바 한해의영향인지 의외로다수한 응모자가 ... 백여명에 달하고잇다 ... 부내 각공장에 ... 생활주제방침으로 ... 시켜서 ...

리에게 발각되어 주세령위반으로벌금백원에 처분을 바덧다는데 드른바에의하면 생활곤난으로 어찌할도리가업서 위반되는줄알면서 그와가튼일을 저즐른것이라는데 일반은주의하여 이런일이 업기를바란다고한다

酒稅金違反으로 罰金百圓에處刑

【槐山】괴산군감물면백양리(槐山郡甘勿面伯陽里) 백춘옥(白春玉)은 밀수를 하다가 세무관리에게 발각되어 ...

쪼껴나는白骨들

鹽里共同墓地의墳墓

九月廿八日까지移葬을要望

부외 염리공동묘지는 일부대현지구(大峴地區)토지구획정리에편입되어 지금공사중이므로 경성부에서는 금년봄부터 사용금지를하엿는데 부당국에서는 정리지구에포함되지안는남어지 분묘구천개도 은평면신사리(恩平面新寺里)로이전정리하기로되엿스므로 그곳에분묘를가지고잇는이는 구월이십팔일까지에 반드시 개장하지안흐면 무연총(無緣塚)으로인정하고 부청에서 전기신사리로 이장정리하기로되엇다

城南體育會主催의 近畿少年蹴球大會

本社京南支局後援으로

【京南】부내서빙고정(西氷庫町)성남체육회(城南體育會)에서는오는구월십칠일 공휴일을 이용하여 본사경남지국후원하에 서빙고소학교운동장에서 제오회근기소년축구대회(第五回近畿少年蹴球大會)를 개최키로결정하엿다는데 일반소년축구단체에 참가를희망한다하며 참가규정은 다음과갓다

◇參加規定

一、參加金 毎隊二圓式 (特히顯)

一、資格 五尺一寸以下

一、申請期限 九月十五日午後五時까지

一、抽籤 九月十五日午後六時本部會館

一、競技日時 九月十七日午前八時부터

一、場所 京城府西氷庫小校運動場

一、申請所 京城府西氷庫町 城南體育會

壽松小學校 男子同窓會

시내수송소학교(壽松小學校)에서는 회재이후노흥키위하여 한번도 열지못하엿던 남자동창회를 오는이일(토요)오후세시부터 모교강당에서 개최하리라는데회비는이십전이요 오래간만에 열리는만큼 만히참석하기를바란다고한다

聯合青年團大會 寶城에서도開催

【寶城】오는구월삼일 당지북소학교에서 동군연합청년단대회를 개최하리라는데 이날은 군내각청년단원 오백여명이 회합하느니만치일대성황이 예상된다고한다

飮酒黨만흔咸鏡道

一年間酒類消費千七百萬圓

咸興稅務監督局調査

【咸南支社發】함경남북양도 사십오만육천백삼십여석의 탁주와 청주가 ... 일년동안 함남 ... 리의 ... 흥부약주석식 쳥주는 일만 천오백칠석일 ... 일천칠백만원의 거액에달한다 ... 이것은 모두양도내에서 소비되고 잇스며 이우에 또 사만여석이나 더이엇다고잇스나 ... 잇슬 ...

賣笑街를肅淸

【平壤】우리지제에게 해독을끼치는 매소가(賣笑街)를 숙청하는 선풍이이 불어서 각방면에 만흔

南京

▲時日 九月十七日午前八時부터

▲場所 西氷庫小學校運動場에서

▲身長 五尺一寸以下

▲申請期限 九月十五日午後五時까지

▲參加金 毎隊二圓式

▲抽籤 九月十五日午後六時 同會館

第五回 近畿少年蹴球大會

◇主催 城南體育會

◇後援 朝鮮日報京南支局

新造血 滋養强壯劑

鐵철 肝간 油유

어린이의發育을建全하게 하고、榮養을補給식힙!

成長期에잇는어린이에게는 充分한榮養과運動 睡眠이必要하며 한便血液素와 비타민A、D를補給식히지아니하면안됩니다。滋養鐵肝油는 血液의要素『鐵』과비타민A、D가多量으로包含되여잇는『肝油』를主要成分으로하고 外國一級한榮養劑를 調合식힌것으로 成長期에잇는 어린이들에게 가장조흔 補藥입니다。一日三回 식食後服用하면 血色이조와지고 體重이늘며 骨格이堅實하여저서 健全하게發育합니다。

從來의鐵이나肝油는 듣고 惡臭가甚하여 어린이들이먹기를실혀하엿스며 茶나牛乳가튼것으로服用할수업스나 滋養鐵肝油는 이런缺點을改良하야 服用하기便宜하도록하엿고 茶 牛乳와도가치먹을수잇습으로 어린이들도조와서服用합니다。

請求次第試用藥 說明書無料進呈

小用 月分(一五〇瓦)一圓八十錢

用 (五〇〇瓦)四圓八十錢

東京市深川區佐賀町

工藤商店藥品部

代理店 京城 新義州 平壤 ...

祝 敦化支局設置

東興銀行 支店長 姜潤喆

敎化 學校組合

東門外 純朝鮮料理業 遊樂亭 主 姜國善

東大街 株式會社 龍井貿易敦化支店

東大街 北滿商事株式會社

大馬路 富田洋服店

東大街 金山洋行

大石河臨江屯 鄭基斗

南門內 カフェー銀河

純朝鮮料理業 太和舘 東門外

淸洋生魚店 本店 敦化北門內 支店 敦化驛前

東門外 東滿醫院 院長 洪三生

北門內 協和商會

環旋通 金田洋行

北門外 株式會社 吉林産業敦化支店

南門外 敦化産業株式會社

南門外 合信商店

東大街 丸萬精米所

南門內 羅門洋行

사랑의 水族館 【26】

金南天 作 鄭玄雄 畵

深海魚(一)

여름내나 볕을 보지 못한 때올듯이 떠거운 장안의 도심(都心)을 떰수머니가 된 뜨거운 살人덩어리를 배쭉하게 태우고서 전차가 지나간다。

현순은 더운것도 여서버린듯이 차창대 여메 비집고 서서 시계만 디려다 보고잇다。

차가 몹시 느린것 갓다。

전화가 오지 삼사시간이 되엇스니 그동안에 모두 일을필햇을는지도 알수 업섯다。영구차가 대학병원서 홍제정 화장상까지 가려면 아무리 느리게 잡아도 한시간 이상은 걸리지 안흘것이다。영결식이 잇고 그다음 시체를 옮기고……어쨋든 지금쯤은 뼈를 추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렷는지도 알수 업다。

그러라면 화장장으로 달려가서 헛물을 켜느니 차라리 양자언니를 차자가서 그를 위로해 주는것이 정경일것 갓기도 하다。

(내가 장례식에 참여하는건광준네 가족에 대한 대접이나 체면으로 하는것은 아닐것이다。오히려 그들은 내가 차자가면 유쾌롭지 안코、서름도 원한도 새로워 질는지알수 업는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전차에서 내리지 안코 현저정 조점까지 왓다。

『뻐스』는 이내 오지 안헛다 그는 대합실에 들어 가기도실허서、양산을 바다 퓌양을피하면서 다시 제의 생각을 추궁해 보앗다。

(그럼 나는 무엇하러、누구를 위하여 화장장에 가는 것일까?)

물론 대답으로 여러자지가 준비 되어 잇섯다。

첫째 죽은 광준이를 위하여 그리고 둘째는。양자언니를 위하여──

그것은 병원에 위문을 가던 때의 심리와 다를것이 업섯다 단하나 그러한 대답뒤에 광호의 그림자가 얼른 얼른하는것이 그를 초조하게 하고 그를 불안스럽게 만들엇다

(그럼나는 김광호를 보러화장장으로 가는것일까?)

죽은이에 대해서나 양자언니에 대해서나 죄스러운 생각이 엇다 그는 머리를 대엿다。

(다른 가족들처럼 광호도역시 내나 양자언니에 대해서 불유쾌한 생각을 품고 잇슬는지모를것을!)

『뻐스』가 왓다。현순은

(어쨋든 내 할도리를 하면그만이지)

하고 처음 떠날때와는 퍽 기분이 달라저서 화장장가는『뻐스』에 올라탓다。

『뻐스』에도 사람이 만햇다。잡아떤 자리를 남에게 내어수고 그는 쇠고리를 잡고 일어섯다。차는 무학재를 넘어서 언덕을지처내려가고 다시 한참을 더달리더니 신작로 여메머짓다 녹보니(綠番里)가는 손님을 내려 노코『뻐스』는 화장장으로라고 쓴 힌팔뚝이 선 길로회어 돌아 언덕진 길을 올라가고잇섯다。

처음오는 현순은 자갈이깔린 넓직한마당에 내려서서 두리번두리번사방을 돌려본빵 산골짜기다。그리고 바라보이는 마즌산에는 자그마한 비석들이 총총히서잇다。절人간갓기도하고 산장갓기도 한집이 솔사이에 보인다。

그는산에서 눈을돌려 커다란 굴뚝이지붕뒤에 울퉁삐칙솟은 가튼 집아프로 걸어갓다。

──아집일것이다。이안에 장치된 화구가 만흔 유체를 순식간에 몇조각의 힌뼈다구와 한줌의 뼈오얀 재로화해 버리는것이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이 업다。저편 마당귀에 늙은 노파가 한사람、두루마기도 입지안흔『도리우찌』쓴 청년에게 불추을당하여、기진 맥진해서 서엇는것이 보엿스나 물론 그는 광준네 가족이 아니엇다。

역시 불일을 다 보고 해골을 추려가지고 다시 공동묘지로 간것인가?

대합실가튼 방이잇섯스나 늙은 영감이 벼를 돌고 나올뿐 그밧겐 아무도 보이지 안는다 다시 뜰을 돌아 다른 방에 가보앗다。향로도 엇고 촉대도 보이는것이 아마 여기가 영결식장── 시체와 영구히 이별하는 장소일것이다 하고 그는생각해 보며 가슴속에 이상한감상이 스며 드는것을 느꼈다。그러나 그곳서도 그는 한사람의 알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엿다。

역시 다 돌아간 뒤인것 갓다。그는 사무실을 차자서 사정이나 알아 보고 갈바게 별도리가 업다고 생각하엿다。

그는 양산을 밧지도 안코 다시 뜰을 돌아서 사무실을 차자섯다。

그러는데 아까 대합실가튼 방에 기대고 서서 웃저고리를벗어 들은 광호가 물끄럼이 저기쪽을 바라보고 잇섯다。

"볼것다보앗스니 푸리는어찌할가"

同情할수잇는無錢取食心情

⑰ 文·寫·畵…金熊超

『자어번에는 얼굴을드시요』

나는 한가지과정을 뭇낸듯이 몸을바로잡고 이러케분부햇다 궐녀는 여전히 나하라는대로 렬을 숙 내밀고 얼굴을 처든다。그러나 퍼차에 여간거북한노릇이 아니다。자신이야 잇거업건 맨꼭대기에다 얼굴을 내걸고 팔도강산 이천만 인구속을 헤치고 회저으며다님제는 짓구진 못사람의눈이 쏘아보고 모진비바람과 차와선이 부디칠것을 십분각오햇스련만 이자리에서는 다만한가닥의시선이 얼굴에 꾀치는것뿐인데 그리 따거운지 모르겟다。내가 궐녀의 얼굴을 바로 본다는것은 결국 배엽굴을 궐녀에게 빠보이는것이 되지안는가 궐녀의 얼굴이 좀더 복잡한 장치를 가젓다면 이런경우에 그의 두눈을 잠시 뒤룩수로 돌려노흘수잇겟지만……하는수업다。그러라고 여성의 흥미잇는얼굴을 이기회에 상세히보지못하는것은 두고두고 서운할일인즉

『눈을감으시요。……그리고 뜨랄때 뜨시요』

어만하면 안전지책이다。나는 마음노코 궐녀의 면판을 샅샅히 뜨더보았다 두우적다못해 입가장자리에 경련이생길 그런불상사도 미연에 방지되엿다。

▼이마──약간 다붓한듯하니 소견이 좁다고할수 잇슬가? 그러나 알만보아야 여자의이마다 그까닭은 복판에가르마가잇고 긴머리가 머리를 차롱텃스니가……。

▼눈섭──그리 만지도못한 편인데 면도를밀고 저멍이로 그린고햇다。역시 젊은 여자의 눈섭여다。예마에 주름살이 업스니까……。

▼눈── 아 고놈의눈!그려나 재법 팽찬다。뜨면장꺼풀질론……속눈섭이 저러케기니까 뜨면무섭지!재업시 여자의눈이다。

▼코── 적경일미리메-타-가량되는 깡안사마귀 세개가 왼쪽눈아래로부터 코스등예겸처 별자럼 박혀잇다。이 무슨팔자며 소판인지 내 본시 엄배업다。

▼입── 갈데업시 여자의 입술이다。썩 도저하면은 못되나 정분잇는사람이면 할롤만도하다。

▼턱── 굴텁이안섯스니탈잘을것업고 면도자리업스니여자의턱인건 분명하다。

▼얼굴──분으발랏솔당정가죽이 그리 두터운편은 아니다。결이 곱다면 거짓말이되겟고 분명히 거친편이며 나뿐혈색이다。어것을 멈느라고 분파『뻬니』를 사용햇는즉분명치 섭존해엇든……다。

정안(鑑定眼)이여!어이상아무리본대도 나올것은 더업다。

『음!』

여쨋거나 나는 어려케 의며심장한 용조를 발햇다。궐녀도 눈을뜨고 입을 다떤다

『다보섯세요?』

『아-니…입을벌리시요』

궐녀는 거북한듯이 우습나오는것을 참고 입을 쩍 벌린다。그리조흔 체체라고는 할수업다。내자 말을 걸렷한 탓이겟지만 입을 벌리라고 한것은 이를 보자는건데 이는 고사하고 생선아개매가치 시빨건 목구멍속을 보이고잇다 기왕 보는김인지라 나는 한손으로는 어마 한손으로는턱어려케 궐녀의 머리를을 쥐고 잡곤바 광선잇는쪽으로돌렷다。내가 어버이노라 의사는못되나 궐녀가『떠푸테리-』에 걸리지안코 편도선이 비대하지는 안흔것만은 알겟다。

『자-이를 봅시다』

궐녀는 버릇던입을 닷고나서 다시 두쪽의입술을 상하로 버리고 꼭다문이빨리를들처내노앗다。호마(胡馬)자 북풍에우는모습이라 볼상이 저보다 더사나웁다。

궐녀의 이스속은 퍽곱다。열모인사람중에 어러이스속가진 사람이 드물게다。그러나 외쪽으로 견치(犬齒)바로다음 소구치(小臼齒)한개에 조작어 떨어서나간것이 옥의티라고 할밧게업다。

『어──(쩨쩨쩨)!』

다감한나는 애석하다는듯으로 서롤찻다。궐녀는 무슨 불길한예감이 들엇는지 싯욱해진다。어쨋거나 사람의 상판이란물쪽 흥미가잇다。어것이 인체의일부분이되 중요기관이 모두몰려잇는 말하자면 도심지대(都心地帶)라 그교묘한시설에는 탄복아니할수업다 도시(都市)의내용은 그무한적 시설이설명하는것인즉 경찰판상쟁이가 인체의도심지대를보고 그의운명을감정한다는것은 집작커대 그러허망된것이 아닌것갓다。

그것그러라하고 나는궐녀의인체를숨더 감상할필요가잇서귀와코를미 어깨쪽지까지 보앗다。그이상의것은 내가예술적 양심을 가지고『미론』의『뷔-너스』를 보는것과는 다른즉 차마 더손댈수는 업는일이다。

『인전 다보셧서요?』

『다밧소이다』

선선히 이러케 대답은 해노핫스되 푸러 할일이 큰일이다 큰일이라기보다 이만저만한일이아니다 무전취식(無錢取食)한자의 삼엄이란 이러려니하고 우선 긴한숨을 마음노코 내수엇다 궐녀는 이한숨에 무슨 뜻이잇스려니해서 눈만 말똥말똥뜨고 나의최후의단안을 기다리고잇다

『에-또…』

나는 우선 이러케 운을떼어노코 눈을 스르르감앗다 식자자본다면 내가고등수학(高等數學)을머리에노코 푸는줄 알게다。

내가 본바로는 그의총평(總評)을『양』(良)으로 칠수잇다。이채점은 소학교중학교 염학자전형에 쓰는것이니『양』은『우』(優)와『가』(可)의 중간이니 악말해 수수하면여다。

첫째 키가 좀적으나 바라진편이라 체중이상당하고 영양이조코 눈에『도라-홈』이나 결막염은 업는것갓고 청력(聽力)도 팬찬흔것갓고 축치도업고편도선도팬찬하다。새맹(色盲)이 잇고업는것이라는지 더구나 자궁후굴(子宮後屈)이며『헤르니어』(배꼽나오는것)가 엇고 업는것은 더구나 알길이업는즉 이것만은 떠러둘바게업다 그러고보면 대체로 조흔육체요 철심점이상의 얼굴은된다

그러나 노는계집이상 시프니 조해에『우』나『양』은 출수업스즉 야시장(夜市)식으로이려저려 업둘러처서『양』으로 철밧게업다。──참 맹랑한판상생이다。

『자 허러발 장황히할건업고、간단히 생각나는대로 몇마디만 하겟소 당신은 피가만흔사람이요、그리고 속에병이잇소。그러고언제고 시름이 가슴에꽉 억차잇소』

어떳소 하니 못는듯이 나는여기에서 잠시말을 멈첫다 여전히 눈을감고 정좌하고안자서……。

『피만라는말은 맛는것가타요 여적지 가끔 조금만괴로원도 코피를쏫는일이어서요 그리고 구출도 어떤때는 업다가도잇슬때는여간만히나오지안어요…어것도 병이길레 그러치요』

『그러치 그게 피가만코병잇늘 까닭이지요、그러데 피가 만타는것은 또한정이 만타는 말도 되는것이요。당신은 정이 너무만하서 해를보는수가 잇소。사람이정이만호면 마음도고흔법이요。그러나 세상에늘 괴척은사람이 만하 내정을빼으려고만들지 자기정을주려고들지연소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그고흔마음씨와 정때문에남에게 적악은 못하고놀해를입는수가만할소』

나는 여기에서 도랄올끈코 실눈을 뜬채로 솔며시 형세를판망하니 궐녀는 마음에질러는게잇는지 고개를 푹떨어트리고잇다。

娛樂과 趣味

急轉하는 世界政局에 彷徨하는 映畵都市

아메리카映畵의 大打擊

각각으로 변하는 **(세계)** 정세가 지금이라도 당장『국교단절』이 될듯하여 보이다가도 아무일업시 외교교섭으로서 해결되고 또이러케 원만히해결되엇는가 생각할사이에 또하다른지구의 일각에서 불측뒤처나와 격렬한 마찰의불꽃을 퍼뜨리는작금의 예측하기어려운 국제판게에 비명을날리고 잇는것으로서『허리웃드』의 영화촬영소를 들수가잇다。

▼……▲

하여튼 전세계를 **(시장)** 으로하고 어느때어느나라를 물론하고 거기에적합하도록만 들어패히사출만한 영화만을 제작하는것이『아메리칸』영화계의본령인 동시에 기획모적인것이다。그러므로서·영화제작은『아메리카』산대상업층의 하나로서층요시되어 잇는터이지만 동시에 어러한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잇는만치 만약 현금과 가튼 **(복잡)** 다단한 세계정국이 그야말로 전화(戰火)를 일으키어『세계대전』의 도화선이라도 될것가튼면『아메리카』의 영화계야말로 하루아침에 가두로나와 방황하지안흘면 안될것은 명화한 사실이다

▼……▲

그것은『아메리카』영화계가 세계시장으로부터 벌어드릴 수입을미리예산세우고 제작한 막대한투자에의한 영화작품의 **(수출)** 할항로(航路)가 언간 폐쇄되는 까닭이고 만약 그러케된다면 대체그 막대한 제작비용을무엇으로써 대신메꾸느냐는 크나큰 기업적인 번민이잇는까닭이다。

▼……▲

그뿐아니라『아메리카』의 영화는 자국내의 흥행만으로서는 도저히 수지가맛지 안홀뿐아니라 또한거액의 투자를회수할수 업는우려가 압서는까닭이고 또하나는 그의영업상대자측인 세계각국으로하여금 그들의 **(세력)** 파 문화에 추종하여 영화의내용을갈하자면 상당적으로 제작하여오든 종래의태도를 계속하여나가는데도 여간 곤란한것이 아니어서 요즉에는 큰나라는 그러치안치만 적은 나라는 그러치안치만 적은 나리축의 휴페가 넘무도 자주도한 동향적으로 구현되므로서지금 이와가튼 현상으로서는 도저히 장래를 추측할수업는 끈란한 지경에 빼지고만 까닭이다。

▼……▲

그러니까 방금 제작중에잇는 영화라고해도 예를들면『췌코』가 드디어 **(붕괴)** 되자『허리웃드』의 영화제작업자들은별안간 당황하여꼬작품중의『췌코』를 중요시하여집어넣엇던『컷트』를 베어버리고 새로이 거기대신하는 장면을집어넣는등 파연 외부의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업을만큼 그들은 여러가지의 장해와곤란과 직면하여 자본가들론 제작업자들도 지금은 파연 어찌할수업는 우울중에 걸리어 신음하고잇는것이다。

노래하는新人 ★샤-리-·로스

의 이끼란 정히제삼자는귀냥 당자 자신도 알수업는것이다。오늘 인끼배우엿던"스타-"도 내일보면 벌써 이저버린 존재가 되기가일수가 그반대로 어제까지도 무명신인이던 배우가 오늘에 돌연그야말로 일약"스타-"가 되는수가비일비재다。

▽▼…그러니 그것은결코 불행예도 아닐것이며 수치도아닐은 말할것도업다。여기에 소개하는샤-리-·로스도 그러한 행운의제비 배우의 행운 아가씨의 하나다。

▽▼…미국『오마하』라냇 인끼! 더구나 에서나서『칼리포니아』대학 여배우 을졸업하고 이어서 성악(聲樂)에 재질이잇는 탓으로M·G·M으로 들어가『사나이의 세계』『머리-위-도-』등에출연한적이잇스나 불행하게도『로스』양은 우울하엿고 감독들도 한결가치 그에게는 냉정하여 조흔역을 주체로 수려하지 안헛다。그러니까 말하자면 M·G·M에서 잇서서『로스』양은 한낫 유순한 조연자에 지나지 안헛던것이다。

▽▼『로스』양이 최근에 유망한 신인으로『데뷰-』하여『아메리칸』의 운막(雲幕)에 는 질원으로 도는 양화의 류를 유발하게된것은 오로지『파』사의 덕택이다。『파』사에서『로스』양은 노래하는『스타-』로서 뚱상하엿다。『상철년의 대박송』『와이키키의결혼』『상길녀의대박송』……등 출연영화 로 결코 게 몋어지지않는다 의 앙날에 어떠케 처개될지 그것은 역시어리웃든의 의문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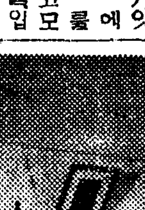
(사진은『로스』양)

『리스킨』의名"컴비"『카플러』 獨立푸로로結成!

【東京發同盟】『어느날밤에 생긴일』『하룻밤만의숙녀』『오페라·햇트』등 만흔걸작을발표한 각본가(脚本家)『로버-트·리스킨』과 감독『프랑크·카프라-』와의명"컴비"는 작년에『리스킨』이『컬럼비아』사를 탈퇴하고『사뮤엘·골드윈·푸로』에 참가하엿스므로 일시는 해소되엇섯스나 최근『유나이트』사가 독립"푸로"설립에의한 명"컴비"부활을강구한결과『카플러-』는『컬럼비아』영화『"스미쓰"씨 수도로가다』를 완성하는 직시로 십삼년동안 활약해오던 동사를 고만두고 일방『리스킨』도『골드윈』영화『울의희피』의 완성을 기다리어 동『푸로』를떠나서 두사람은 오래간만에 악수를하고 독립"푸로"를 결성한후『유나이트』산하로 옮기엇다는데 그들의 제일회작은 아직 미결정이나 금년내로 발표될모양으로 일반의기대는 크다한다。

李蕙蘭과 漫談

노래나 춤으로가 아니라단지『입심』으로 한목숨 보는여배우" 그의 이름은 이혜란(李蕙蘭)이다。그는 정말 말이만코 화제가 풍부하고、그리고 또한 아무나 들어서 재미잇다。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는 요즘 만담가(漫談家)란 새로운『니코·네임』을 어덧다。그러니까 혹시 다행히 예란양과 여흥장소를 가치하는 경우가잇스면그에게노래를 시키지말고모고 훔처어 그의『입설』을 거만이 향락하는것이 사리에 올흘것이다



一行百科辭典

▲공기(空氣)는 보통 어떤분의 산소(酸素)를 포함하고잇는데 일분이 하가되면 불쾌감이 엽어나고 그이하가 되면 호흡곤란에 빠진다。

佛·蘭·西 39年度『國民文化大臣賞』發表

劇映畵는"마르세르"監督·안개낀港口

【東京發同盟】금년도 불란서 국민영화 대신상(大臣賞)은 최근에 다음과가치 발표되엇다。

▲극영화대신상(劇映畵大臣賞)=『마르세르·카르네』…『안개낀항구』

▲문화 영화 대신상(文化 映畵 大臣賞)=『시네·루포-르타-쥬』작품:『방호(防護)는 되엇는가』

과학영화대신상(科學映畵大臣賞)=『요만돈』박사작품

그리고 이상과 가튼 각 대신상의 수여식이 잇슨후 문상(文相)은 그곳에 열석한 각관계자에게대하여 오는구월『칸느』에서 개최되는『데모크라시-』국가의 국제영화『콩쿠르』에 대한 조력이잇기를청하엿스며 동시에『콩쿠르』의 우수작에는『크리、투이、유미에-르』가되리라고 회언하엿다

朝鮮의……再認識映畵

체신국(遞信局)과 동경 신흥(新興)이 제휴하고 방금전국적으로『로케』중에잇는 수산진사(須山眞砂)감독 고천농미(古川農夫)주연인 신흥문화영화『대륙가도(大陸街道)』는 내선융화를 중심으로한 신대륙건설경영의 거지로서의 조선을 재인식시키는『테-마』가『중심』『스토-리』가 되어잇다한다

『국기아래서…』 九日、大陸에서封切

조선문화영화협회(朝鮮文化映畵協會)

『浪漫座』猛練習

★…오는삼십일일부터 구월사일까지 오일간 시내부민관에서 극단 낭만좌(浪漫座)의 배영극(排英劇)『아편전쟁(阿片戰爭)』이 엇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와갓거니와 동좌는 아프로 하루밧게 남지안흔 공연초일을 압두고 방금 맹연습을 거듭하고잇다는바 특히이번에는 각본이 각본인만큼 일반의기대는 자못크다한다(사진은練習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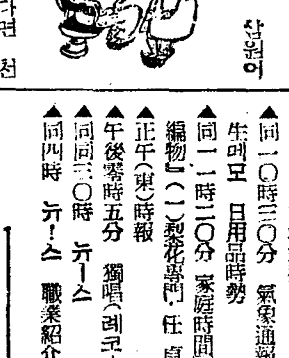
海外珍聞集

三日三夜를步行한 七十四歲의老人

【倫敦發同盟】얼마전 영국에서『찰-쓰、하-트』라고하는 금년 일흔네살이나된 노인이 사흘낫사흘밤이나 조금도 쉬지안코 계속적으로 걸어서드디어 일백칠십구『마일』을답파하여 청년들을 놀래주엇이 잇섯다한다。

이 노인은 영국『아마추어』체육협회의 후원으로서 별안간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아일랜드』해안『리바풀-』을 출발하여서 조금도 쉬지안코 예순한시간이나 걸어서『잉글랜드』의 동서를 횡단하여 목적지인 북해안『스켓지네쓰』에 도착한것이라한다。그런데 이 노인이『스켓지네쓰』에 도착하엿슬때에는 피로도인해서조금도 거름을 걸을수가 업게되어 겨우두사람에게 부축을 바다서 여관으로 들어갓섯다는데 훗사히 모든 용태며 증세가꼿벼지가탓섯다한다『하-트』노인은『리바풀-』을 출발하지 집안사람들과일가친척과 또 의사들은 근심을 참지못하여서 자동차를타고 노인을 따라가면서 격려를하여 어 대여행을 성공시킨것이라한다

우습쌈지



▲齒科醫

환자『어 한개 빼는데 삼원이라니 정말 어수룩한장사군요 시간도 뭘 단 오초나 걸려요?』

의사『아、정-그러시다면 천천히 빼드려도 조홉니다』

라디오 프로 三十一日(木)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 ▲同七時·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商生曲모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二〇分 家庭時間『가을編物』(一)製花專門 任貞姍 ▲正午(東)時報 ▲午後零時五分 獨唱(레코-드) ▲同三〇時 뉴-스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對話『世界에생긴일』어린이新聞會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盧基南 ▲同七時三十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講演『權利의濫用』京城地方法院 張璟根 ▲同八時三十分 京畿歌謠 一、海山歌 二、세비歌 三、진아리랑 權瓊蘭 細笛 李忠善 短簫 崔壽成 ▲同八時四十五分 歌詞와唱詞 一、將進酒 二、唱詞 安鶴仙 李月色 鼓樂 李斗峰 杖鼓 金一宇 ▲同九時 連續講談『赤穗義士傳』(三) 金振九 ▲同九時三十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 뉴-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二三) 金鳳姬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健康講座(十七)▲午後零時五分 (東)라디오코메디 ▲同六時 (大)連續劇 ▲同七時四〇分(寬、鹿)俚謠▲同八時 (大)리포-트演藝▲同八時三〇分 (熊)詩吟

國手對抗大碁戰

精銳한黑軍先驅

白、自作家는海棠無香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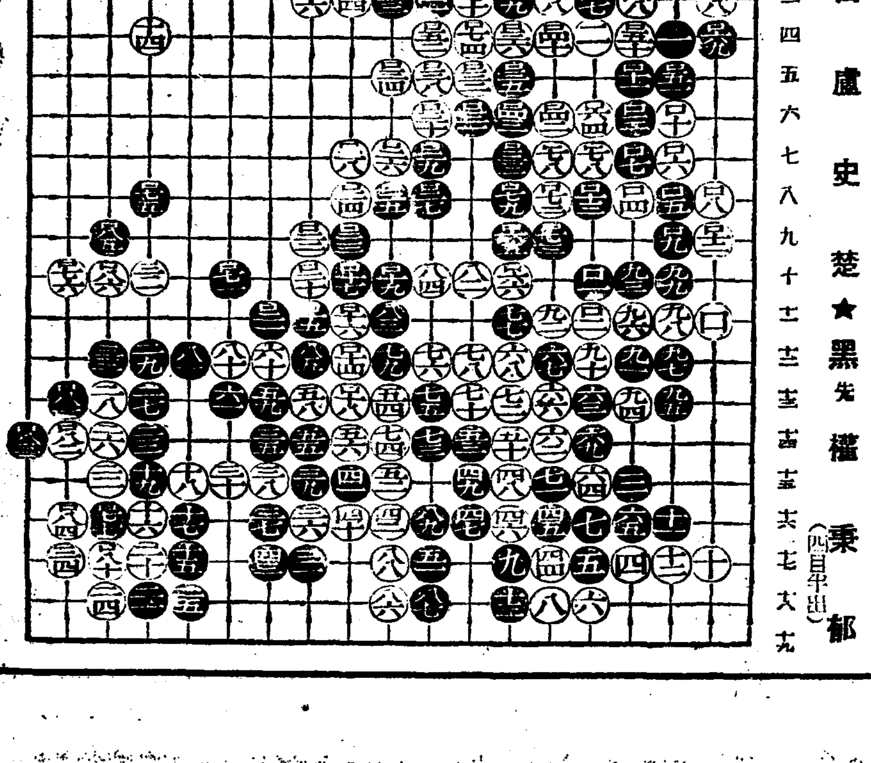
白 盧史楚 ★黑先 權秉郁 (四目半出)

前譜劫棄餘痛은 東流水로다 洗去하고 左中部에 新工作이 展開한다 黑百七一은 劫을다시 慾하지안코 自馬를 堅固히하매 卯의 一○에 白地를 侵蝕할가하는 妙計이다 그러나 白은 아무리 패를 利用할가하여도 應하지안흘데는 어찌할수업서서 躊躇하다가 虛虛實實로 已의 八에 試驗的一投石하나 黑은 劫을 打할 理萬無이다 따라 已의 九에 完壁을 成하니 白의 胸中秘策이 所用이 업고 不得已劫處에『辛의四』잇고야 말앗다 黑百七五는 果然 조흔수로自認한다 白百七六은 守備하기보다 도로 包圍될가 十分 염려하여 未의 一○으로 直立하니 黑은 漸入佳境으로 午의 一六에 단수를 부른다 白은 하도 어이가 업을레지。病暑之年가 望夜月而嘆이란 格으로 아메 잘못進出하다가逢敗한 餘地라 놀라지안흘수업솔듯 白百七八은 脫惑에 不過하나 黑도따라 庚의 八에 左右連結하니 白은 無可奈何로 午의一六에 應한다 以下 黑百八一로 百八四까지는 順序를따라 재치고 바드며 몰고 따니 外面에는 別味가無하나 局中에 黑의神奇한수가 潛在하다 黑百八五는 아마好手로 認할수밧게업고 白도午의 一○에對着안할수업다 이로써 白의 自作家는 黑精銳軍의 進擊을바다 片片破碎하니 마치 海棠花 꼬치 보기만조코 實로 香氣가 업는것과 彷彿하다 참애석할것지저

手	着點
●一七一	卯의十
○一七二	已의八
●一七三	已의九
○一七四	辛의四
●一七五	巳의八
○一七六	未의十
●一七七	午의十六
○一七八	已의七
●一七九	庚의八
○一八〇	午의十七
●一八一	未의十三
○一八二	未의十四
●一八三	申의十四
○一八四	未의十六
●一八五	午의九
○一八六	午의十

劫點……

手	着點
○一七二	庚의十三
●一七七	辛의四
○一八〇	辛의三
●一八三	辛의四
○一八六	辛의三
●一八七	柱
○一八八	辛의十二
○一九〇	辛의四



自戰記

權秉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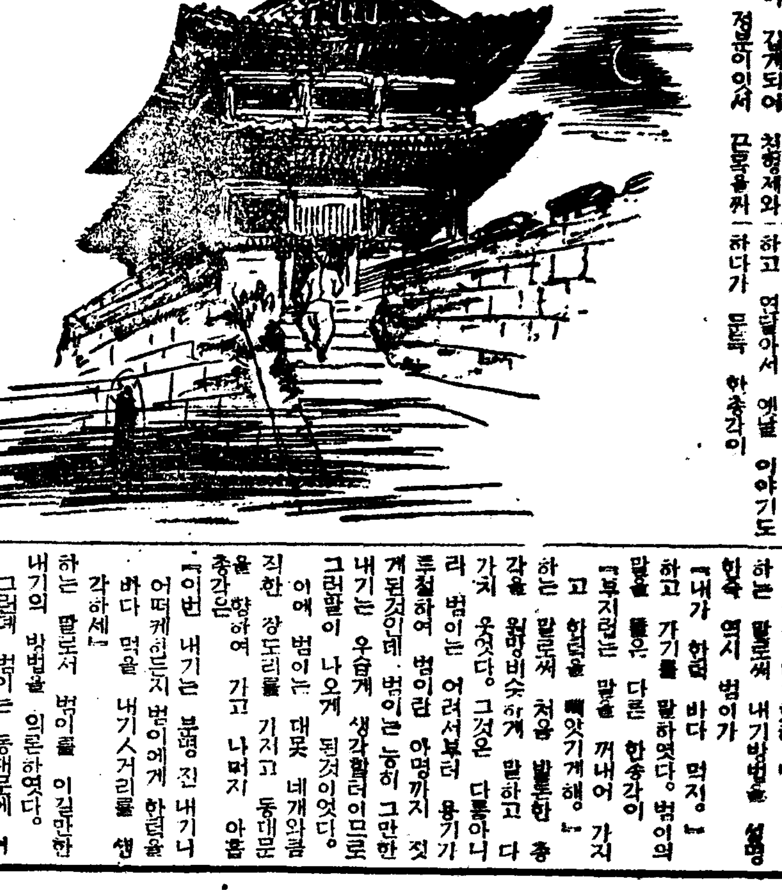
紅燭十雙

中鼎 書 ① 連續怪談

남사촌(南村) 돌다리(石橋)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거지반이수머니고 파 허리띠를 짜 팔아서 그것으로 생애를한다。그러므로 돌다리 큰방을 들어서면 그런 끈목을 짜는 버드소리와 물레소리와 고드랫돌소리가 매우요란스럽게 들리고 그요란스러운 소리는 늬집에서나 똑가치 흘러나온다。그중에서도 소위열총각끈목집이라는 별명을 듯는집에서는 엉、잉、와그락、데그락하는소리가 더욱이나 요란스러웟다。

열총각끈목집이라는 말은총각만이모여서 끈목을 짜므로 별명이 된것인데 그 총각수효가 꼭 열명인 까닭이엇다。그런데 그 열총각은 어상스럽게도 그 처지가 똑 가트니 첫째로 그 열총각은 모두가 무변(武弁)의 후손인것이 가튼 처지요 둘째로 그 열총각은 모두가 일직 어버이를 여이고 설리설리 자라게된것이 가튼 처지요 셋째로 그열총각은 모두 가세가 난한것이 가튼처지요 넷째로그 열총각은 거의노총각의 지경에 이르도록 장가를 들지못한것이 가튼 처지이엇다 그래서 그열총각은 예전의세의도 세의러니와 특히 더가튼 처지인것이더욱 인연이 깁게되어 친형제와 다름업는 정분이잇서 끈목을짜는데도 그와가치 한자리에 모여서 동사하게된것이엇다。그런데 그열총각은 끈목을 짜서 목구멍에 풀칠하는데만 만족히생각하면 그전경은 아주 닷을감는 셈이된다고 생각하여 나지면 한자리에서 끈목을 짜고밤이면 한자리에서 글공부를 정성스럽게하엿다。

때는 정히 쇠와 돌이 녹아내릴듯한 더운 삼복 절기엿다 어느날밤에 그 열총각이 역시 끈목을 짜다가 밤에서 공부를 하자니 더웁기도하고 몰것도 엽체업시 떰비는것이 괴로워서 압마당에 멍석을 펴고 달빗아래에 모여안저서 입으로만 이왕 공부한것을 서로 강론하고 엿날아서 옛날 이야기도 하다가 문득 한총각이



『우리 오늘밤에 참외 한턱할 내기를 해볼까?』

하는 말을 꺼내자 범(虎)이란 총각이 얼른 그말을 채뜨려 가지고서

『어떠케 내기를하자는게야?』

하고 내기할 방법을 먼저 물엇다。그 내기발론한 총각이 또한 그 방법을 말하되

『우리중에서 누구든지 동대문종루(鐘樓)에 가서 쇠못을 한번 도는데 그곳에서 표적으로 네벽에다 못을 박고 오면 우리가 다가치가서 본후에파면 약조대로 못을 박엇스면 나머지 아홉사람이 한턱을 내고 그러치못하면 가던 사람이 한턱을 내기로해。』

하는 말로써 내기방법을 설명한즉 역시 범이가

『내가 한턱 바다 먹지。』

하고 가기를 말하엿다。범이의 말을 들은 다른 한총각이

『부지런는 말을 꺼내어 가지고 한턱을 빼앗기게해。』

하는 말로써 처음 발론한 총각을 원망비슷하게 말하고 다가지 웃엇다。그것은 다름아니라 범이는 어려서부터 용기가 뛰여나서 범이란 아명까지 것게된것인데 범이는 능히 그만한 내기는 우습게 생각할터이므로 그런말이 나오게 된것이엇다。

어에 범이는 대뜻 네개와큼직한 장도리를 가지고 동대문을 향하여 가고 나머지 아홉총각은

『이번 내기는 분명 진 내기니 어떠케하든지 범이에게 한턱을 바다 먹을 내기시거리를 생각하세。』

하는 말로서 범이를 이길만한 내기의 방법을 의론하엿다。

그런데 범이는 동대문에 이르러 충충대를 올라갈새 혹시 수문장(守門將)이나 수문졸(守門卒)에게 들킬까 염려되어 충대를 올라설적마다 좌우를 살피며 잠간 잠간 몸을 멈추다가 오른것이 무사히 문루 문압까지 당도하엿다。범이는 또하차우를 살핀뒤에 문을 가만이며는중 별안간 범이의 뺨을 후려갈기므로 범이는 깜짝 놀라

『내기하려 왓소。』

하고 돌아다 보즉 사람은 업고 오직 박쥐 한마리가 어깨에 부딪다。범이는 그박쥐를손으로 후려갈기며

『에끼 재수업게 박쥐놈에게 뺨을 마섯네그려。』

하고 문물문을 여니 그안으로 부러서 공팡내가 석긴 찬기운이 훼끼치엇다。범이는 그공팡내가 코에、일차하게 마치며 별안간에 재채기가 나므로

『에끼 방정마진 재채기。기어허 수문장에게 잡히게 하려구。』

하며 얼른 문루안으로 들어가 오른편 벽에서부터 차례로 못을 박고 막나오려하는데 무엇인지 몸에 부디지며 흐늘흐늘하는양이 눈에 어른거렷다。